

소학행

6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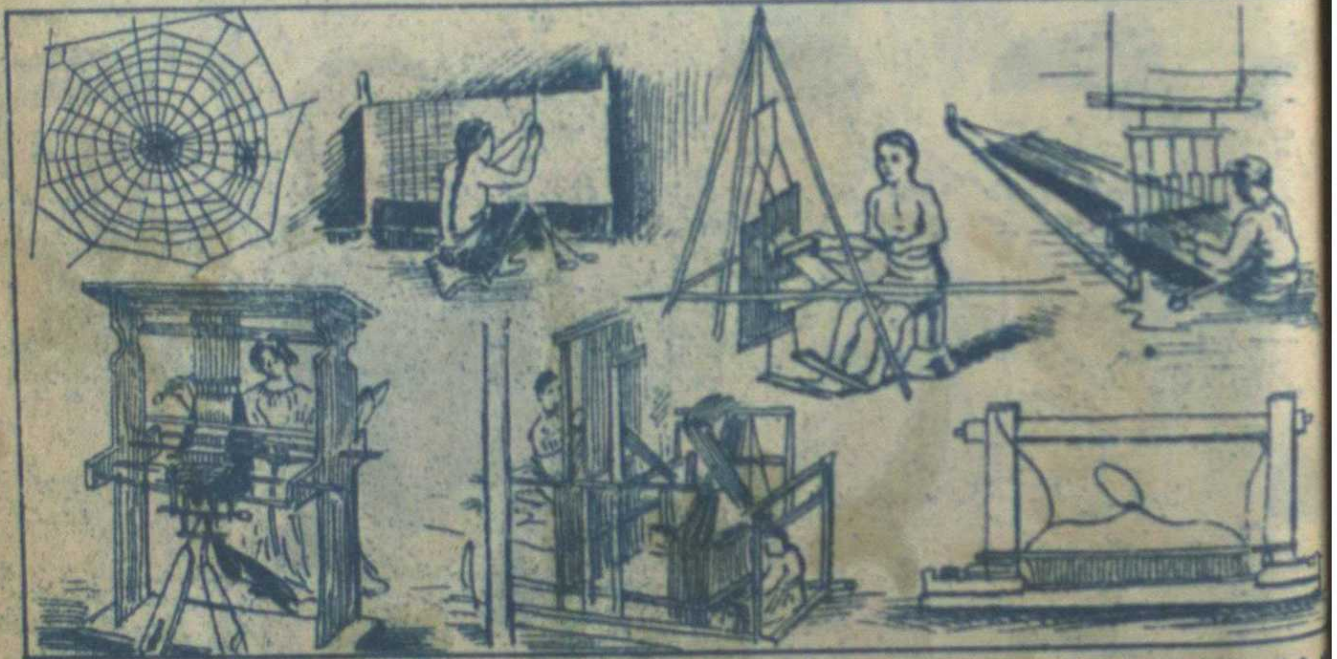


동 - 무 동 무 어 - 깨 동 무
 동 - 무 동 무 어 - 깨 동 무

인 제 든 - 지 갈 - 이 - 눈 고
 천 리 길 - 도 말 - 지 - 안 고

동 무 동 무 어 - 깨 - 동 무
 동 무 어 - 깨 - 동 무

어 디 든 지 갈 - 이 가 고
 해 도 말 도 마 - 라 오 고



베들의 내력

①로운 거미줄을 보고 사람은 옷감짜는 것을 발명했을 것이다. ②먼치음벨 꼰꼰한 나뭇대기에 형질 걸이판을 칠을 몇개든지 늘어놓고 열실을 넣었다. ③옛날 아프리카 것으로 좀 발달되어 발



을 움직이고, 손으로 다른 일을 하였다. ④인도의 베들. ⑤④와 구조가 비슷한 16세기 구마라의 베들. ⑥중국의 베들. ⑦서기 1733년 영국 존·케이 라는 방카

아사의 옷감짜는 사람이 복을 명하여 유명한 삼업혁명(産業革命)의 길을 열었고, 이것으로 얻은 화구피부스, 아르와이로 두 사람이 열심이 연구한 철자각 방직기(紡績機)를 1764년 발명했으며, 그후 점점 발달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소학생

1948년 9월 1일 발행

60호 9월치

차례

문화·아기 화벌...김요섭(4)
 문화·가난한 사람...김현미(37)
 소설·봄의 노래...정민택(8)
 소설·소년 삼국지...박태원(30)
 풍요·지 내...이원수(5)
 풍요·초가집...박은중(17)
 풍요·맛보기...박영중(27)
 풍요·소년과 박사...홍이삼(20)
 비경·기쁜이렇게...박동식(14)
 비경·피었다?
 우리들의 연구실...최영환(6)
 가루와 고슴도치...주요섭(24)
 장강 나무.....(24)
 바닷물은 왜 푸른가.....(36)
 악보·윤석중·윤극영(2)
 작곡·피플의 노래.....(2)
 보·세계각국의 게임.....(44)
 게임·서동지...김용환(18)
 화·바뀌어.....김광택(43)
 화·옥실쟁이.....고상영(14)
 화·과리장난...고상영...(26)
 소식(36)우리말도모르기(5)
 장모라다(23)부그림속담(13)
 학생작품(27)★당산포자(35)
 법서·의승태.....(7)
 윤그릇·담는법.....(11)
 편지·타는일장목.....(15)
 사다·타는대리오는인형(40)
 편지·말기(40)★부부랑간(41)
 말·박사(38)부적척박사(41)
 소학생구락부.....(42)
 반문·나서.....(42)
 ★그림 그리실 분★
 김현웅·김용환·김기창
 최영환·조병덕·최수형
 김경장·김기창



그림·김의한

아기와 별

김요섭

하얀 꽃 박꽃 포기포기 핀 오막집 지붕 위 하늘에 별이 가득한 밤, 풀잎 벌레 소리에 마을이 떠 오를듯 합니다. 아버지는 오리골로 제사보러 가시고, 산 밑에 외딴 집엔 등잔불 깜박깜박 켜 놓고, 마루에 단 들이 덕이라고 누나는 밤 하늘의 별들을 하나, 둘, 셋, 열, 스물, 천, 일흔 하고, 다섯 개 열 손가락을 꼬부리었다 폈다 하며, 별을 세다 말고 덕이는 차근 차근 버선 짚는 누나보고 물었습니다.

“누나, 하늘에는 무슨 별이 저렇게 다 세지 못하도록 많우?”

“그 별이 모두 하늘나라 창문이란다.”

“하늘나라 창문?”

“그렇지. 하늘나라 창문이지. 밤마다 하늘 나라엔 보름달보다 더 밝은 등불을 천사들이 켜면, 저렇게 하늘나라 창문으로 푸른 빛이 흘러 나온단다.”

덕이는 입을 딱 벌리고,

“아유! 하늘나라엔 무슨 창문이 저렇게 많아. 우리 집에

는 새 개 밖엔 없는데.....
..... 그 밝은 등불을 우리 마을에다 켜놓으면, 저어기 반월리 가는 고개 위에, 벼타맞은 수양버들 꼭대기에다 달면, 정말 우리 마을이 환할거야.”

“수풀에 초란한 저 벌레 소리도 없이 고요하면, 하늘나라 천사들의 고운 노래도 저 창문으로 가늘게 흘러 나오는 것이 들리련만.....”

“참 누나, 저 엄마도 하늘나라



갔다지?”

“암 그러기에 다른 천사들처럼 어머니도 이따금 저 하늘나

라 창문으로 살뎀이 덕이랑 누나랑 아버지랑, 몹성히 잘 일어나다 보기도 하고, 덕이가 아파 말씀 누나말 잘 듣고 있나, 저 창문을 열고 기웃이 내려다 보기도 하신단다.”

“정말? 거짓말이지 뭐.”

“암, 정말이지.”

“그럼 아무때든지 엄마가 우리 집으로 오시겠네.”

“꼭 오시지, 이제 덕이가 누나 말 아파 말 잘 들으면, 어머니가 저 하늘나라 창문으로 내려보시다, 오오 우리 덕이 참 착하다 하시면서... 울지! 저어기.”

누나가 버선 짚다 말고 손을 쳐들어 가리키는 전달래봉 위로, 쏘-오 별뫼이 하나 푸른 불 켜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저런 별을 타고 덕이에

게 줄 선물을, 과랑, 빨강, 노랑, 별 훈장을 수두룩히 단 하늘나라 양복을—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꼬가 신에, 알록달록 별 모양 같은 꼬가 모자를 가지고 오신단다.”

덕이는 흡족한 듯이 살포시 웃으며 별 하늘을 다시 한 번 물끄러미 쳐다 봅니다.

“그 때가 언제쯤일까?”

“그 때가 언제쯤일까? 누나도 모르겠는데.”

덕이나 덕이는 돌아가신 어머

니가 그리운 모양이지요.

“고파 옷도 다 짊으니까 엄마
만 얼른 와줬으면...”

“자 누나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가 오시지, 인젠
두 눈을 꼬옥 감고 코오코오 자
고, 아침이면 틀앞에 산새가 오
기 전에 먼침 먼침 일어나야
지.”

덕이는 아무 말도 없이 누나
를 따라 이불을 쓰고 누웠습니
다. 등간 불도 그만 꺼 버리고
덕이의 꼬옥 감은 눈에 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벌레 소리는 더욱 높아갑니
다.

물밑에 소롱소롱 이슬은, 아
마 누나하고 덕이의 이야기를
듣고 울린 별님의 눈물인가 봐
요.

주룩물 밑에 귀뚜라미도 엄
마 없는, 덕이가 불쌍한가 보지
요.

귀뚜라미 귀뚜라미
귀뚜라미 귀뚜라미

(끝)

그림 · 김 의 환

동 요

저 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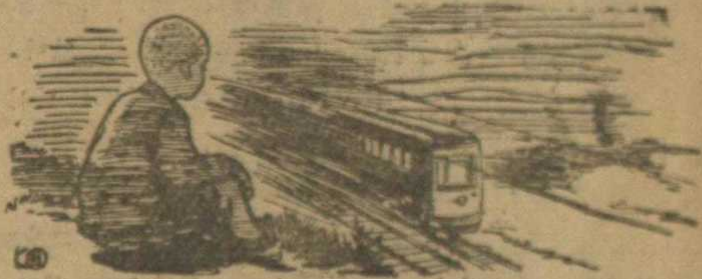
이 원 수

저무는 한길에 저녁 안개가
오고 가는 사람들을 썩버립니다.

바쁘게 돌아오는 그림자 속에
언니 누나 누군지 안보입니다.

휘파람 불며 가는 청량리 전차
스파이크 푸른 불이 몹시 큼니다.

오늘도 저물어 하루 하루
아버지 뵈올 날이 가까웁니다.



ノリアイジドウシヤ(乗合自動車)

→승용기 차.

ハイキウ(配給)→대응, 빌려주

기, 손아 주기.

ハイキフ(配達)→분전.]

ハクボク(白墨)→분필.

ハンクロタイ(柱時計)→거는 시

계, 계승.

ヒキク(皮肉)→빈정.

ヒヤク(百匁)→열량중.]



ヘイキ(平氣)→대연.

ホンダテ(本立)→책꽂이.]

マツリ(祭)→①굿. ②놀이. ③제

사.

ミヤグ(土産)→선물, 풍물.

ムチヤクチヤ→함부포, 뒤죽박죽.

モンベ→몽자바지.

ヤミトリヒキ(闇取引)→거역정사

ユウビンキツテ(郵便切手)→우표.

ヨビリン(呼鈴)→갈매, 초인종.

ラクガキ(落書)→장난 글씨.

ロウカ(廊下)→복도, 골마루.

ワリバシ(割箸)→짜개 젓가락.

(끝)

지느러미는 무슨 일을 하나



최명환

물고기의 생활과 지느러미

물 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대개 지느러미를 가졌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다. 물고기는 아니지만 고래 돌고래(海豚) 등도, 지느러미나, 또는 이것과 비슷한 것을 가졌다. 그렇다면 물에서 사는 동물은 모두 지느러미를 가졌으며, 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임에 틀림 없다.

자아 여러분! 이 지느러미가 무슨 일을 하나 연구해 보기로 하자.

이 지느러미를 조사하려면, 물이 같은 것으로도 괜찮지만, 너무 등적(動作)이 빠르므로, 자세히 관찰하기에는 꼭 곤란하다. 제일 적당한 것은 금붕어로, 이것을 어항에다 담고 위와 옆으로 관찰하면, 지느러미의 활동을 똑똑히 볼 수 있다.

맨 먼저, 지느러미의 이름을 조사하자. 이 금붕어의 지느러미는, 등 한가운데 있는 등지느러미, 흉문(肛門) 뒤부터 배에 이르는 지느러미, 뒤 끝에 있는 꼬리 지느러미, 가슴에 있는 지느

러미, 그 뒤에 배지느러미가 있다. 이 중에 가슴지느러미는 사람으로 치면 손이요, 배지느러미는 발과 같은 것이어서, 몸의 양쪽에 하나씩 붙어 있다. 다음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는, 쉬고 있을 동안과 움직이고 있을 동안의, 들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움직이는데는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 갈 때가 있고, 옆으로 꼬부라지게 나아갈 때가 있다. 그리고 꼬부라지는 모양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나눌 수 있으나, 자세히 보면, 이런 것이 모두 쉬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만 뒤로 물러 갈 때만은, 대개는 똑바로 나아가지, 꼬부라져서 나아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면 지느러미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잘 주의하여 보면, 하나는 물

고기가 물 속에서 한군데 머물러 있을 때 몸의 균등(均等)을 잡기 위한 일을 하고, 또 하나는 물고기가 자기 마음대로 어느쪽으로든지 운동할 수 있게, 말하자면 배(船)의 키(舵) 방향을 돌리는 기구)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을 나아가게 하는, 즉 추진기(推進器)의 일을 하는 것은, 지느러미의 활동이 아니고 주로 꼬리지느러미가 붙어 있는 곳의 근육에 의한 것이다.

여러 분은 죽은 물고기가, 배를 위로 하고 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죽은 까닭에 등을 위로 하고 물 속에 경직하고 있을 힘이 없어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은 등지느러미다. 엉덩이에 붙은 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도, 얼마쯤은 힘을 쓰나, 등지느러미만큼은 활동을 못한다. 그러므로 돌고래(海豚) 같은 것은, 등지느러미는 있으나 엉덩이에 지느러미가 없다.

움직일 때의 지느러미의 활동

다음 움직일 때는 지느러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자. 물고기

는 무슨 운동이든, 모든 지느러미를 적당하게 활동시키고 있다.

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몸을 물에 거스르지 않게, 등지느러미, 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를 움직여 물에 착 붙이고, 꼬리지느러미가 있는 곳의 근육을 움직여서 나아가는데, 속력(速力)을 구하는지, 또 쉬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등지느러미를 끈두세우는 것이다. 등지느러미는 함정의 널판 같은 것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움직여서 물의 저항(抵抗 - 버티고 막는 것)을 많이 해서 정지(停止)하는 것이다. 그러면 뒤로 물러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물고기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피 드물며, 이러한 때는 꼬리지느러미가 있는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가슴지느러미를 움직여서 조용히 물러 간다. 또 이 가슴지느러미는,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꼬부라지는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배지느러미와 등지느러미, 엉덩이에 있는 지느러미는, 흐리려 몸이 꼬부라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꼬리지

느러미는 舟의 굴동을 잡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나, 이것을 가진 물고기는 뒤로 물러 가는 동작(動作)이 자유스럽지 못하다. 좁은 구멍 속에서 살고, 뒤로 앞으로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될 뱀장어는, 이 꼬리지느러미를 갖지 않았다. 더욱 재미 있는 것은, 우리들의 손발과 같은 일을 하는 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는, 물고기의 생활에는 그리 필요하지 않은 듯, 따라서 이것이 없어진 물고기도 적지 않다. 그러고 없어지는 차례는, 배지느러미가 먼저고, 가슴지느러미가 나중에 없어진다. 이것은 배지느러미는 없어도 가슴지느러미는

남은 것이 있으나, 가슴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반드시 배의 지느러미가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물고기의 지느러미만을 조사하여도, 물고기의 생활과 그것이 사는 곳을 알지 못한다. 금붕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고기에 대해서 그 물리는 점을 잘 조사하는 것도 재미 있는 공부 가 될 것이다. (끝)



×××××××
엽서(葉書)의 유래
 ×××××××

서양에서 우편이 시작되었을 때는, 봉투에 넣은 편지만을 취급하고 엽서라는 것은 없었다. 그보다도 누구나 다 그러한 것을 쓸 줄도, 또는 생각조차 못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독일의 에마누엘·헤우만이란 사람이, 수 많은 편지의 내용을 조사해 보고, 그 중 삼 분의 일이 집을 이사하였다는

통지, 무슨 잔치에 오라는 통지, 장사지내는 시간의 통지 등, 아주 간단 하고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헤우만은 "이러한 것을 큰 종이에 쓰고 또 봉투에 넣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양쪽이 다 손해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귀찮아서 편지할 곳에 안할 때도 있을 것이다. 만일 크기가 일정한 종이에, 뒤에는 편지 사연을 쓰고, 결에는 우표를 붙이고 주소들

씩서 편지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편하고 쉬울 것인가" 이 같이 생각하여 우편국장에게 말을 해 본즉, 국장도 그럴듯이 생각하여 정부(政府)에 권고해서 실령하게 되었다. 이것이 엽서의 시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지금 전보와 같이 자수(字数)를 제한하여 20 자 이내라야 되었으나, 그후 어떠한 것은 폐지되고, 종이도 철수로 모두 인쇄한 것을 정부에서 발행하게 되었다.

|| 소 || 녀 || 소 || 설 ||

봄의 노래

정 인 택
그림 · 김 의 환

★ 59 호까지의 대강 이야기 ★

동호는 해방 때까지 같이 학교에 다니던 동무 형태를 삼년만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동호는 “좁쌀”이란 별명대로 여권히 키도 작고 몸도 가냘팠으나, 형태는 물라 보리만큼 숙성해서, 이미 “절굿쟁이”란 별명은 어울리지 않았다. 체구만 그렇게 컸을 뿐 아니라, 형태는 어른 같이 세상 물정을 잘 알았다.

형태는 동호를 극장에도 데리고 가고, 정요리도 사 주고 한다. 학교 외에 그런 세계가 있는줄 처음 알은 동호는, 형태의 유혹에 빠져 아주 나쁜 아이가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하루는 형태의 청을 못이겨, 집에서 돈을 훔쳐 낸다.

그런 일이 있는 후, 동호는 양심의 가책을 못이겨, 여러 가지로 생각한 나머지, 형태와 더 사귀이지 않으리라 결심한다. 다시

착한 아이가 될 작정일 것이다.

그러나 형태는 반죽 좋게 집요로, 학교로 동호의 뒤를 따라다니며, 자꾸 돈을 달라고 졸라댄다. 그러나 동호에게 돈이 있을 터 없었다. 그것 때문에 그들 둘은 대가리가 터지도록 싸운다.

그 때 형태는 동호에게 어떤 말을 하였다.

“어 자식아, 넌 애비 에미두 없는 자식야. 얼어다 기른 개구멍 받아야.”

그 말을 듣자 동호는 하늘이 무너진듯 놀란다.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동호는 정신 없이 길을 쓰다닌다. 어떻게든지 해서 형태를 다시 만나,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날씨가 몹시 추웠다. 동호는 그에 어느 극장 안에서 졸도(卒倒)하고 만다.

백화점 층계를 올라 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다 본 형태는 계단에 소름이 쭉 끼었다.

어느 틈에 뒤를 따라 왔는지, 동호가 시뻘겋게 충렬된 눈을 부릅뜨고, 아까와 똑 같은 자세로 자기쪽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아이구, 저런 거머리 같은 자식! 죽기를 기약하고 덤비는 사람 같이 무서운 것은 없다. 형태는 동호가 인제는 호랑이 보다는 더 무서웠다.

형태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운동구부 기둥 뒤에 숨었다.

이 때 동호는 층계를 올라 가는 형태의 뒷모양을 힐끔 본 것 같아서, 혹시 하고 두리번, 이중삼중으로 찾아 다니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한 번 겁을 집어 먹은 형태의 생각에는, 꼭 자기가 발견된 것 같이만 여겨져서, 동호가 운동구부 앞을 지나치자 마자, 어마 뜨거라 하고, 쓴살 같이 백화점 밖으로 뛰어 나오고 말았다.

추운 날씨였으나, 동어리에 진땀이 흘렀다.

.....좁쌀만 천개, 죽어간 죄송이상일세.....

여태껏 한 번도 싸움에 저본 적이 없는 형태였으나, 동호만큼 당할 수 없다 생각하였다. 생전 처음으로 혼이 난 것이다.

세시같은 “좁쌀”에게 그런 기백이 있을 줄은 형태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다.

어른 같이 억센 주먹으로 따피

고, 지고 때도, 피루성이기 되어
속이와 하고 알려들던 조금 아
가리 동호의 모양이 다시 두텁이
눈 앞에 떠 올랐다.

형태는 가늘게 몸서리를 치고,
잠시 바빠 그 벽화점 근처에서 멀
려 떠나고 싶어, 걸음을 재촉하여
영동 골목, 복작거리는 사람들
중에 섞여들었다.

겨우 좀 마음이 가라앉았다.
다음이 가라앉고 보니, 이 번엿
은 밤을 걱정이 머릿속을 어지럽
게 했다. 돈 오백 원, 아니 정 안
되면 삼백 원만 있어도……그것
을 미천으로……하다 못해 담배
생사라도 시작할텐데……(아직
향담배 한 갑에 이십 원, 삼십 원
밖에 안할 때였다.)

흔적서 살아나갈 방도가 서면,
형태는 아주 길을 나와 버릴 작
정이었다. 얼음장 같이 차디찬
가정, 식구가 모두 원수 같이 으
르렁 해고만 사는 가정, 애정이라
고는 먼갈만큼도 찾아 볼 수 없
는 그 가정……가정이라기 보다
장옥이라는 점이 슬을 것이다…

…이라는 굴레에서 하루 바빠 형
태는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술 취한 아버지에게 호되게 때
를 맞고 난 형태는, 진부더도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으나,
밤새도록 울고 나서 오늘 아침
굳게 마음 먹고 동호를 찾아 갔
던 것이다.

이런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제
일 먼저 동호를 생각하더라도,
형태 때에는 동호를 가장 가까운
벗으로 여기고 있었다. 형태가
학교를 나온 후사친 동무들도 한
둘어 아니었으나, 모두 같이 놀
때면 동무였지. 이런 동사정을 할
쳐지는 못되었고, 그렇게 하고 싶
지도 않았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오직 동호가 있을 뿐이라고, 결으
른 나라내지 않았지만, 형태는 마
음 속으로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
던 것이다.

그래서 동호를 만났던 것인데,
……왜 나는 동호의 손을 잡고,
마음 속에 있는 말을 정직하게
털어 놓지 못했을까……그렇더라

면 하고 형태는 동호와 싸우게
된 자초지종을 가만히 머리 속에
서 되풀이 해 보는 것이다.

왜 동사정을 못하고, 부망소별
모양으로 순진한 동호를 헐뜯하
다 싶어 했을까……지금 형태는
몇번이고 그것을 후회하는 것까
다.

동호와 싸우고 헤어진 후, 생
각다 못하여 벽화점에 있는 동무
를 찾아 갔던 것인데……동호께
문에 거기서도 성공못하고 말았
으니 어떡하나?

형태는 문득 어느 다방(茶房)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결도 안도 하얗게 깔린 백아관
(白雲館)이라는 다방이었다.

……음지, 참 건 명수씨한테…
권우선수 집 명수가 자주 다니
는 다방이었다. 큰 선수필 소경
(素鏡)이 있다고, 건 명수는 무
척 형태를 사랑해 주는 터이다.
그에게 청해 보면, 혹 들어 줄지
도 모르는 일이었다.

건 명수와 같이 몇번 와 본적
이 있는 다방이라, 형태는 서슴
지 않고 다방 안
으로 들어 갔다.

구석 "복스"를
차지하고, 건 명
수는 마침 혼자서
심심하다는 뜻이
담배만 껍피 빨고
있었다.

……됐다……

형태는 관음에
그 앞으로 걸어가
서 넋죽 뒤리를
꾸부렸다.

(2)

어찌하는 일관



으로 봄인양 좋은 날씨다. 바람
다자 차지 않았다. 마음도 가볍
다.

형태만이 그렇게 아닌 것은 거
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수효가
부쩍 늘은 것으로도 얼른 짐작할
수 있다.

모두들 어깨를 으쓱으쓱 치켜
올리고, 걸음걸이도 가볍다.

형태의 입에선 저절로 휘파람
이 새어 나온다. 발끝을 까불어
장단도 맞춰 보았다.

이런 때엔 신기하게 가물에 콩
나듯 하던 전차까지도 금방 오는
법이다. 좀 분비기는 했으나, 그
래도 저우 겨우 얻어 탈 수는 있
었다.

형태는 사람들 틈에 끼어, 무
심히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날씨도 좋았으려니와 무엇보다
도 쿠머니가 두둑하니, 형태의
마음은 조뚱하다. 지금 형태에게
아무 불평도 불만도 없었다.

전에 없이 콜이 죽어, 고개를
떨어뜨리고 딱한 사정을 이야기
하는 형태의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김 명수는, 형태 이야
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불쑥 이
렇게 물었던 것이다.

“대체 왜 집엘 들어가구 싶지
않단 말이나?”

“.....”

형태는 대답을 안했다.

“말러기 싫단 말이지.”

“네.”

“그럼 나두 묻지 않겠다. 그래
서.....돈이 얼마나 필요하
구?”

“네, 저어.....저어 한 오백 원
만.....”

“오백 원!”

팔장을 끼고 한침 생각에 잠겼
던 김 명수는 이속고 벌떡 일어
나더니,

“같이 가자.”

앞장을 서서 밖으로 나가는 것
이다.

따라 간 곳이 김 명수의 집이
였다.

...정말 니가 혼자서 살아갈 결심
이나, 나쁜 길로 들지 않고 버티
어 나갈 자신이 있느냐, 아직 나
이가 어리니 권투 선수 될 생각
은 말고 좀 더 공부를 해라.....
김 명수는 친절하게 저녁을 먹여
주고, 하룻밤 재워 주고, 그리고
돈 천 원을 내주며, 몇번이고
이렇게 되물고 따지고 하였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형태
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 “고맙습
니다.”라는 말조차 할줄 몰랐다.

처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받아 본 형
태는,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는가
싶어, 다만 눈이
둥그레질 뿐이었
다.

아침을 먹고 나
자, 김 명수는 형
태한테 물었다.

“인제 어디로
갈 작정이냐?”

“담배 장사하는
동무 한테두요”

“오늘밤부터 어
디서 자련?”

“그 동무러구 한
테있겠어요.”

“그럼, 가 봐
라.”

“네.”

“혹 감 자리가 불편 하거든...
...얼맛동안 우리 집에 하 있어
도 좋다. 아무 염려 말구 이따
가라두 구락부우 오너라. 이
러워할 것 없어. 알았지?”

“네.”

형태는 생긴 처음으로 눈시울
이 뜨끔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
이 부끄러워 형태는 부리나케 전
차까지 다름질쳐 나온 것이었
다.

전차가 마약 공원 앞 정류장을
떠나려 할 무렵이었다. 형태 바
르 옆에 서 있던 노인이 별안간,
“악!”

하고 외마뼀소리를 지르며,
“소매치기다, 소매치기다!”
고함을 지르며, 가슴을 두드렸
다.

차 탔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



다 그리로 옮겼다. 형태는 점점
의 증노인 앞에서 몸을 비켰다.
“시계가……시계가 없어졌다.
어보, 차경, 이 안에 소매치기
가 있으니, 아무도 내리지 못
하게 해주시오. 소매치기요!”
차 인이 급사로 발끈 뒤집혔
다.

“왜 그래?”

“소리 맞았으나 봐.”

“소리?”

“재수 없이 전자 잘못 탔군.”

제각기 우군우군하며, 상을 쟁
그리는 사람, 신기장듯이 소리
난 쪽을 넘실거리는 사람, 입 안
에서 불꽃말로 증일거리는 사람,
……그런 가운데서 시계 도둑맞
은 노인은;

“글쎄, 여기다 이렇게 쇠줄로
매달은걸 감쪽 같이 떼어 갖군

요. 틀림없이 이 안에 있을테
니까, 고놈을 그지 손목아걸 잘
러 봐야……”

걸에 섰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풀어 헤쳐 보이며, 노인은 불매
인 소리로 두덜대고, 그리고 어
느 놈이 대제 내 시계를 훔쳤어,
하는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모
습을 이상한 눈초리로 살피는 것
이었다.

(3)

윤전수는 차를 과출소 앞에다
갓다 대었다.

순경이 달려왔다.

무엇이라 윤전수와 몇 마더 주
고 받고 하더니, 차는 순경을 태
운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다음 정거장은 마침 경찰서 앞
이었다.

경찰서 옆 과출
소에서 여러 사람
의 경관이 꽃이나
와, 전자 앞뒷문
을 단단히 예워쌌
다.

우선 도둑 맞은
노인을 불러 내리
더니, 자초지종을
살살이 캐어 묻고
나서, 다음엔 한
사람씩 순경들이
차 탔던 사람들의
몸을 뒤지기 시작
하였다.

형태 차례가 왔
다.

형태는 대연하
게 순경 앞아가
팔을 벌리고 불

이건 참 심상

은(銀)그릇 닦는 법

꽃잔, 꽃병, 컵, 재떨이 등
의 여러 가지 은 그릇의 녹은,
치분을 헹겍에 무쳐서 닦으실
시오. 치분가루가 먹그러워지
잘 닦이지 않으면, 참기름이나
머리기름을 조금 타서 닦으시
고, 닦은 뒤에 얼룩이 지면 비누
물로 씻으시고, 말는 뒤에 마른
걸레로 닦으면 은이 잘 납니다.
은(銀)은 조금이나 축축한 걸
을 아주 싫어합니다.

다. 어서 뒤집십시오, 저는 모릅
니다, 하는 태도였다.

순사의 손이 잡아 주머니를 떠
들었다. 다음 순감, 순경의 손은
서슴지 않고, 형태 잡아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다.

“그겁니다! 네, 바루 그 시계
입니다!”

형태 주머니에서 순경이 잡아
낸 시계를 보고, 도둑맞은 노인
이 휘켰다. 그리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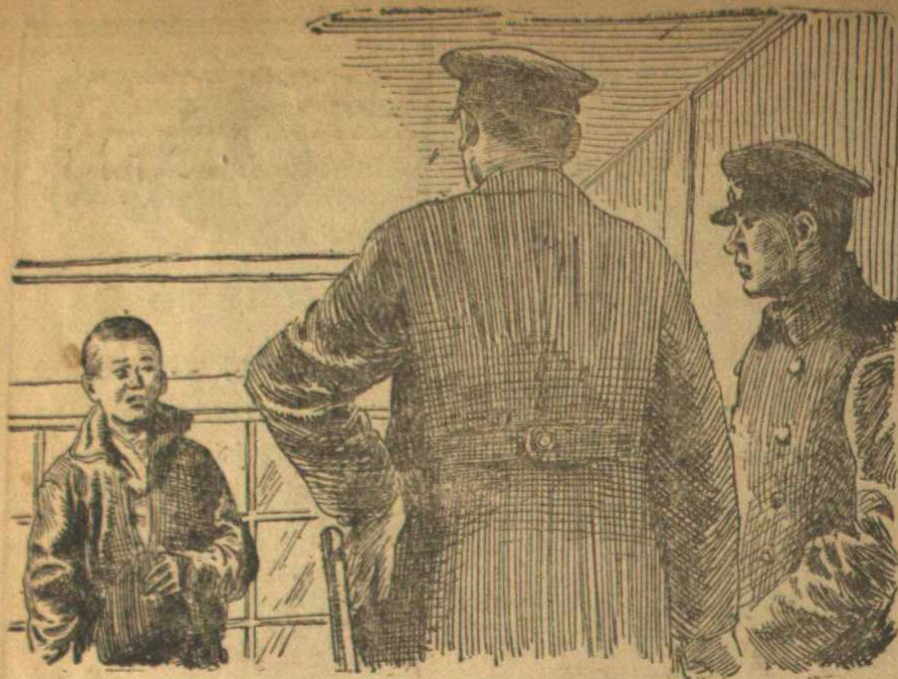
“이 자식, 어린 놈이 벌써 떠림
요바워 깃아?”

형태에게 금방 뛰어박을듯한
기세로 달려붙었다.

그것을 말리는듯 순경은 두 사
람 사이로 끌고 들어오며, 긴장
된 표정으로 형태의 손목을 짊
잡았다.

형태는 저기 잡아 주머니에서
도둑맞은 시계가 튀어 나온 그
순감부러, 이미 눈 앞이 캄캄하였





다. 무슨 영문인지를 알 수 없었다.

어째서 그 시계가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었는지, 형태로서는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형태는 잠간 정신이 아찔했으나, 순경이 손을 잡아, 결창서쪽으로 이끌자, 비로소 일이 어떻게 공교롭게 되어 있는가를 깨닫고,

“아베요, 저는 스티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웬 시계지... 아이구, 저는 정말 몰라요.”

도둑맞은 노인보다 몇 배나 더 놀라 몸부림치며 고함을 질렀으나, 순경은 눈을 부라리고,

잔소리 말구 이리 와!”

이미 쇠인대두는 태도와 말씨였다.

자기를 에워싼 사람들의 시선이 형태에게는 무슨 번갯불 같이 쏘고 두렵게 생각되어, 형태는 또한 한 번 눈 앞이 캄캄해지는 수밖엔 없었다.

잡아 고는 경관을 따라 가는

형태의 걸음걸이는 허공을 밟는 듯 휘청휘청했다.

형태는 시계를 훔쳤다는 혐의를 좀체로 벗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형태 주머니에서 시계 외에, 많은 돈이 나왔기 때문에, 경관들은 더욱 그를 의심하게 된 것이다.

“이 늙, 양금한 늙 같으니, 바른대로 말 안할테야?”

경관들은 이렇게 엄포도 하고, “했으면 했다고 말해. 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사실대로만 말하면 용서해 줄테야, 너 이름이 형태였지? 형태야, 누가 이런짓 허태는? 시킨 사람 있지?”

이렇게 말래기도 하였으나, 한마디도 형태의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형태는 어긋한 누명을 쓴 것만이 분하고 부끄럽고 슬프고 하여,

“전 몰라요. 전 안그랬어요. 정말 전 소매치기 아베요.”

울며, 불며, 그 말 밖에는 할 줄 몰랐다.

노인은 시계를 찾아 가지고 돌아 갔고, 경관들은 형태의 운동을 그치게 하느라고, 문초할 한 구석에 혼자 남겨 놓은 후, 멀리서 담배들만 피고 있었다.

형태는 혼자서 끙그렁 앉아, 얼마를 초췌초췌 느껴가며 울었는지 모른다.

아무리 울어 봤잖아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자기가 소매치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도리는 전혀 없다. 그렇다고 어긋한 누명을 그대로 뒤집어 쓸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어제는 여진히 들먹거렸으나, 형태의 마음이 약간 가라앉은듯한 것을 보자, 경관은 다시 옆으로 다가와서 물었다.

“돈은 누가 줬었지?”

형태는 힐끔 경관의 얼굴을 쳐다 보았다. 그리고는 못마땅한듯한 표정으로,

“김 명수예요.”

툭명스럽게 대답했다.

“김 명수씨한테 전화부 물어 보세요. 명동××권무구라부예요.”

형태가 아무리 성을 내어도 경관은 싱글벙글 웃기만 할 뿐이었다.

“그래, 그건 그렇구... 너 이름이 어더했지?”

“.....”

집에, 아무리 싫은 집이지만, 집에까지 이런 일을 알려고 싶지는 않았다.

형태는 입술을 딱 깨물고 말을 안했다.

“얘, 형태야.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을 해야 일용대 켜.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못나잡다.”

형태는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눈물 고인 눈이 불을 토할듯 시뻘
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저를
안타주세요? 전 아무것도 나
쁘게 생각 없어요. 내보내 주
세요, 내보내 주세요.”

“이놈 파라, 묻는건 대답 안하
구, 한 소리만 러네, 이놈아,
그럼 네 주머니에 왜 시계가
들어 있었어?”

“.....”

그것을 함으로 형태 자신도 모
름 일이었다. 그러나 대답할 도
리가 없으나 말이다. 그 수수께
기 같은 해피한 일 때문에, 지금
이 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
냐?

“.....하필 재수없이, 오늘부터
새 생활을 시작하려는 판에.....”

그것을 생각하니, 또 분통이
터져 형태는 또 으악 소리를 지
르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하였다.

경관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턱을 활활 차더니,

“그 지식, 아주 개고질세. 아
무러도 네가 유치장맛을 좀 봐
야 할 모양이로구나. 이리 와
!”

턱에 형태의 손목을 잡아 문
밖으로 끌어 내었다.

“아이구, 아저씨, 전 정말 물
리요. 전 아무 죄도 없어요.
어주세요, 전.....”

아무런 형태가 울고, 부르짖
고, 울부짖을 처도 소용 없었다.
경관은 형태를 질질 끌고, 유
치장쪽 출구를 향하여 내리갔
다. — (계속) —

그림 속 그림



산 호랑이의 눈섭

죽은 호랑이의 눈섭은 쉽게
아무나 앞에 있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납기로 동
물 중에 이름난 호랑이를, 살았
을 때 어찌 눈섭을 얻을 수 있
으랴. 이와 같이 얻을 가망이
동 없고, 바랄 수도 없을 때 이
런 말을 쓴다.

물에 물란 듯 술에 술
란 듯

물에다 물을 타면 그때로 할
맛이요, 술에다 술을 타면 그
것도 그때로 술맛으로 덜함어
없다. 이와 같이 꾸미고 손
질을 하였으나, 조금도 효력이
없이 예전 모양 그대로 있고 뻔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을 쓰코
도 실거운 사람에게도 쓴다.



선가 없는 놈이 배에 먼
저 오른다

배살도 안 가지고 배에는 먼
저 탄다는 것이니, 실력도 없
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
에게 만화.



익은 밥 먹고 선 소리
한다

밥은 익은 밥을 먹고도, 하는
소리는 선밥과 같이 되지 않
은 말을 한다는 뜻이니, 고연
히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 쓴
다.

(그림 · 김 의환)





비행기는 어떻게 발명되었나?

박 등 식

얼굴과 모양이 비슷한 두 소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형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가사린 누나도 대학에 다니는 데, 우리들만 윗학교에 못들어 가다니 정말 속상해.”

동생은 슬픈 얼굴로 마루바닥을 내려다 봅니다.

“그렇지만 오오빌아. 아버지는 인제 학교 선생님이셨을 그만 두셔야하게 됐으니까 할 수 없지. 이것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단념해야지.”

형은 동생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두 그렇게 생각하구 말렴은 해요. 그래두, 공부는 더하구 싶은데.”

“그건 나두 그래. 너나 내나 학교 성적은 언제나 일등이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오오빌아, 꼭 학교에 다녀야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학교 열 안다녀도 우리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지금부터 우

리들 들어서 열심이 공부하기로 하자.”

하늘을 날으는 과학 장난감

여러 분은 이 형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월바·라이트와 오오빌·라이트라는 소년들인데, 오늘은 마침 아버지가 밖에 나가셨기 때문에 집을 보는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미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두 소리가 나면서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그들의 함으신 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왔다.”

아버지는 손을 뒤로 감추고 빙글빙글 웃고 계십니다.

“아버지, 뭐예요. 뭘 사가지고 오셨어요?”

형제는 똑같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기계 장난을 좋아하는 너희들이 기뻐할 좋은 물건을 사왔으니까. 자 봐라, 하나 들겠!”

그러면서 아버지가 손을 높이

쳐들으니, 그 손에서 이상한 장난감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날아 나왔습니다.

“이게 뭘예요, 네?”

천장에 팔까말까하게 떠돌다가 저쪽 벽에 부딪혀서, 마루 위에 떨어진 장난감을 보고 형인 월바가 물었습니다.

“이건 이번에 새로 만들어 낸 과학 장난감이야. 이것 봐라, 생철로 만든 무거운 장난감이지. 그런비 공중을 날아 다니니 재미있지, 부서지 말고 들고 가지고 놀아라.”

아직 기계로 공중을 날아 다닌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 못하던 때이었으므로, 요술하는 것 같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요 알고 싶어하는 라이트 형제가 이 이상한 선물에 정신을 팔리게 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나타나기 전의 비행기

여기에서 라이트 형제가 나타나기 전의 비행기에 대해서, 간단



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독일의 기술자 오토·리터엘타 루는, 새는 어떻게 날 수 가 있는 것이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날은다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유치한 방법이었지만, 새의 날개를 본받아 형적으로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양쪽 저드림이에 끼고 높은 언덕 위에서 땅으로 날아 버린 것이, 지금으로부터 57년 가량 전인 1,891년 새의 일이었다. 그때에는 제법 공중을 날아서 무사히 골짜기로 내려 오게 되었으므로, 한 때는 아주 새로운 비행법이 발명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자꾸자꾸 실패하는 사이에 점점 배탈해져서, 5년 후의 어느 날, 그는 바람이 몹시 부는데도 그때로 뛰어들었더니, 공중에서 날개가 부러져서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 아메리카의 건축기사 (建築技師) 로, 나중에 천문학자 물리학 교수가 된 사뮤엘·라그리 라는 사람도, 열심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저 하늘을 날오는 새는 어떻게 날개를 쓰는 것일까?" 라고 늘 궁금히 여겼는데, 커서는 그것이 더욱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열심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날으는 데 필요한 것을

대강 알게 된 그는, 그것을 실제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의 모형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에 어떤 엔진을 다느냐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이었으므로, 증기 (蒸氣)며, 탄산가스며, 압착 공기 (壓搾空氣) 등을 써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 결과 제일 좋은 것이 수증기라는 것을 알게 되기는 1,896년 5월, 이것은 독일의 리터엘타가 실험하다가 떨어져 죽기 석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비로소 재료가 다 준비되어서 모형 비행기에 엔진을 달아 가지고, 포드마크 강 위에서, 비행 시험을 한 것은 5월 6일이었습니다. 이 모형비행기는 훌륭히 날을 수가 있어서, 두 차례 시험을 했는데, 두 차례 다 비행시간 1분 30초, 비행거리 약 4분의 3마일이라는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공중 정복의 첫발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작은 모형비행기에는 사람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계만 크게 만든다면, 사람도 태우고 날을 수 있을 것이 라고, 라그리 교수는 아메리카 정부에 이야기해서, 비행기를 만들기 위하여 5만 달러나 되는 돈을 정부에서 얻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며 곧 비행

이걸 참심상

자면서 하는 일광욕

잠옷이나 침구(寢具...이불, 요 등)는 쥘 수 있는대로 자주 털어 쓰어서 말립니다. 이것은 몸에 퍼 태로운 침구의 습기를 없애고, 세균(細菌...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일광(日光) 속에 있는 자외선(紫外線)이 침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벌에 말린 침구 속에서 자는 것은, 자면서 일광욕을 하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여, 몸에 좋습니다.

기 제작에 착수하였는데,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몇 채씩 걸려서 어떻게 하느냐고 떠들기 시작했으므로, 더 충분히 기계를 만지고, 자세히 검토해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7년째 되던 해, 라그리 교수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로 시험 비행을 했는데, 어디가 나뻐있는지 잠시 흔들거리더니, 그만 물 위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낙담하지 않고, 두번째의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연구가



무엇때론 뛰어난 실력하였으므로, 아메리카 정부에서는 그 이상 더 원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돈은 그만 해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의 자라남

라이트 형제는 어린 시절을 오하이오주(州) 베이튼 시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시면서, 글도 쓰시고 또 교회 목사님 노릇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 형제 위에는 형님이 두 분,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 세 사람은 모두 초등 학교를 졸업하고 곧 윗학교에 들어 갔으나, 월바와 오오빌이 초등 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멀리 여행하시는 일이 많았으므로, 그들 형제는 윗학교에 들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들이 집을 보면서 공부를 더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에 아버지가 과학장난감을 사 가지고 돌아 오신 것입니다.

공기 보다도 무거운 것이 날다니.....

그들은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는데, 그때의 월바의 나이는 열 두 살, 오오빌의 나이는 여덟 살이었습니다. 그들 형제는 기계 만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풀이 의논한 결과 자전거 상회를 꾸며서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이라든가 발명이라든가 하는 것을 언제나 좋아 하였으므로, 독일 리터엘탈 기사가 공중을 날은 일이며, 란구리 교수가 모형 비행기의 실험에서는 4분의 3

마일이나 날았으나, 실제의 비행기 실험에서는 보잘 것 없이 실패했다는 기사머를 늘 열심이 읽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면서도 성질은 각각 달라서, 형은 무슨 일이고 이치를 따져가며 연구하는 편이지만, 동생은 이치 같은 것은 둘째치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데 익숙했습니다. 이



라이트 형제

러한 성질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과연 그들이 어렸을 적에 가지고 놀던 “날으는 과학장난감”에서 비행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두 사람은 우선 북(北) 카로리나주(州)에 있는 키티·호크라는 모래 밭을 비행 연습장으로 정하고, 1,900년 여름에 그 곳에 집을 짓고, 비행 연습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독일 리터엘탈의 것을 흉내내서 만들었으나, 그리 실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여름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조금도 본받지 않은, 아주 새로운 복엽기 (날개가 두 개 달린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에는 19초 가량 날았으

며, 100 미터 이상 날려 갔다고 합니다. 그 뒤 두 사람은 더욱 더 연구를 계속해서, 비로소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공을 정복

다음은 이 기계를 날으게 하는 까소리·엔진인데, 이것이 그리 발달되지 못한 그 당시에는, 가볍고 힘센 엔진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까소리·엔진을 설계해서, 12마력(馬力)에 무게 7백 50磅 드짜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는 푸르페라까지 만들어 가지고, 기쁨에 넘치는 그들은 1년 만인 1,903년 9월에 비행정 키티·호크로 떠났습니다. 가 보니, 오래 비어 두었던 관계로, 집이 부서져서 살 수 없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곧 집부터 고치고 비행기를 맞추어 만드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해는 기후가 나빠서 하루 이틀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이에, 가을도 다 가고 어느덧 겨울이 딱쳐 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12월까지, 조금도 서두루지 않고 기후가 가라앉기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1,903년 12월 14일, 이날은 아침부터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자 인젠 날아보자!” 하고 월바가 자리에 올라 앉으니, 푸르페라는 힘차게 돌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기체가 구르기 시작하더니, 수십 미터 끌어 가서 동동 공중으로 떠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빙 한 바퀴 돌더니 속력이 약해지며 모래 밭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 시간이 겨우 3초 반, 그러

고 낮은 기리는 32 미터이었습니
다.

그 때로부터 오늘날까지는 40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서양은
달할 것도 없고, 대평양을 단숨에
넘게 되었으며, 여러 분도 잘 아
시는 B21나 하는 고성능(高性能)
비행기가 발명되었다는 것을 생각
할 때, 누구나 비행기의 급속한
발달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이트 형제의 노력
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어서,
비로소 인류가 수천 년 오랜 옛날
부터 꿈꾸고 있던 일이 실현된 것
입니다. 오늘날에는 비행기 자체
의 발달은 말할 것도 없고, 비행
기술도 정경히 발달되어 가고 있
는 것입니다. 사실 비행장 근처
에 있는 새들은, 가끔 비행기가 비
행장에 내린 뒤에 고등비행술(高
等飛行術)의 흉내를 낸다고 합니
다.

우리는 이 훌륭한 눈부신 발
전을 볼 때에, 빛나는 항공사
(航空史)의 첫 페이지를 차지하는
라이트 형제가, 얼마나 노벨하고
고생하였는가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요 초가집 박은종

초가집 지붕 위에
박넙쿨 올라
달 밤에 박꽃이
새 개 폈다.

초가집 지붕 위에
박꽃이 퍼서
산 넘어 부엉이
울고 갔다.

초가집에는 누가 사나?
아무도 모른다.

구멍 뚫린 창문 앞에
결실짝 하다.
비 바람에 날아가는
결실짝 하다.

누가 남겨 놓고 가았나?
아무도 모른다.

초가 집 지붕 위에
박꽃 핀 달밤에
부엉이가 울고 갔다는
이야기다.



그림 · 정 현웅



(원 결 장)
(그림 설명)

세계 각국에서는 집 뛰기, 노래
부르기, 춤 추기 등 여러 가지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희는 육이나 뼈나 또는 공기,
장기, 바둑 등을 가지고 노는
데, 그밖에 공, 나무관, 몽둥
이, 타겟, 바늘 같은 것으로 놀
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훈
련을 하면서 노는 육상유희는,
스포츠라고 불리우고 있습니

다. 야구, 축구, 정구, 육세
등은 단체적 스포츠이며, 필
라티지, 권투, 수영, 스키 등은
개인적 훈련의 경기입니다. 각
지에 있는 운동장과 올림픽 경
기장에서는, 서로 기술을 다루
고, 사람들은 이것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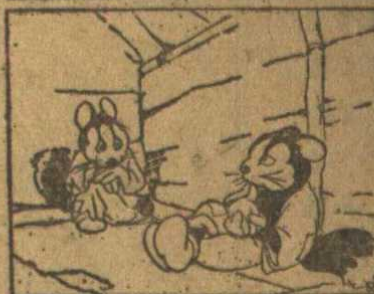
49. 서동지는 잔치를 작려 놓고 보니, 빈좌스럼고 좋았다. 자기는 옷자리에 큰 상을 받고 앉았으며, 좌우쪽으로 좌손 손님들여 늘어 앉았다. 그들 가운데 꽃 같은 색시들이 끼어 앉아서, 큰 잔에 술을 치스라고 한창 바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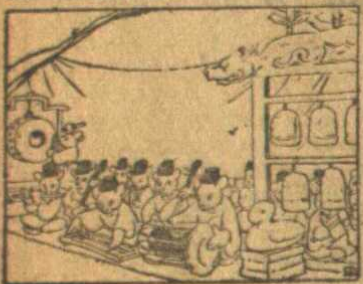
52. 어디 그뿐이랴, 눈물뿐이 무려를 보면, 서동지가 베풀어 주는 선물은 주는 편경이란, 모든 사람의 눈을 휘황하게 하여, 재정의 박수 소리로 노란 요란하였다. 서동지는 너무나 기쁘서 술잔을 놓지 않았다.



50. 이뿐이랴, 한 편에서는 열방 가지 각색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손에 차려 나르기에 눈코 들 새 없이 분주하였다. 금주된 손님들은 밤새만 말고도 코를 죽긏거리며 근침을 넘기고, 벌써 취해서 춤을 추는 손님도 있었다.



53. 이렇게 구광상 팔계 등의 서동지 집에선 잔치를 하느라고 바쁘을 때, 한 편 하도산 나시풍에 와서 자리를 잡은 다담귀는 마음에도 나쁘지간, 일하기도 싫어하여 살림은 어찌할대로 어찌하였다. 오늘날도 아내와 마주 앉아 한숨뿐이다.



51.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한 열에 자리잡은 아악장에서 방금 풍악 소리는, 들기라 여도 저절로 어깨춤이 으쓱으쓱해 지는데, 큰 잔에 술을 먹고 흥이 난 판에야, 춤안 추면 못건디게 피어서다. 서도 어우터져 야단이였다.



54. 조반도 죽을 쑤어 먹어서 벌써 배가 고프도록 소리가 연거푸 났다. 이때 광 팔요로 댕주정군이 흥겨움에 노래를 하며 지나 갔다. 다담귀는 슬그머니 화가 나서 밖을 내다 보니, 드물었었는데, 편지 한 장 두 장 뜯 지기까지 하였다.

55. 조금 있더니 또다시 문 밖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났다. 내다 보니까, 이 번엔 너구리침지가 역시 비물걸음으로 한걸 지고 지나 갔다. 다담귀는 궁글증이 나서 달려가 물었다. 그랬더니 "당신한테 초대장이 안건제로군... 그것도 모르게."



58. 자일 천 속에 잔치상을 받고 있는 손님들이 음식을 두시글 한때, 팔악천이가 조마한 다담귀가 물어 서니, 모두 이상한 눈초리로 힐끔힐끔 쳐다 본다. 다담귀는 어깨를 움츠르드리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가운데로 빠져 나갔다.



56. "제 잔치동 사는 서동지 있지 않소. 그 문 밖에서 오늘 큰 잔치가 있었소. 난 초대장을 받고 갔다가 한상 잘 매점 받구 일찍이므로 가는 길이요. 아악 잔치가 파라지 않았소니 당신도 가 보구려... 청치 않은 손님 거복스럼건 하리다만."



59. 상을 나르며 손님들의 시중을 들고 있던 색시들도, 다담귀의 괴뢰리한 모습을 보고 짹짹 입을 방아를 쥔는다. "어머나... 어깨면 조별게 채살이 없게 겨 먹었을까?" "널보구 시집가라까 화 걱정이나 호호호..."



57. 다담귀는 초대장 소리만 하는 너구리의 말이 아니랄거도 하였으나, 제 드림 하는 소리에 더욱 히기증을 느끼어 맥뎀 옷을 입고 나섰다. 그러나 몇백 걸 그의 자손을 살림에 제 죽대할 것을 생각하니 초대장 이상으로 앙심에 찼다.



60. 다담귀는 자기를 가지고 모두 쟁구 까발으는 줄 알면서도, 배도 유하게 서동지 앞에 가서 천을 날아가는 듯이 하며 인사를 한다. "그 동안 한녕하였습니까? 저 오랫동안 찾아와 밭길 못해 죄송합니다."



소년과학사 (3)

= 조선을 중심으로 한 과학사 이야기 =

홍이섭

제2도 (뼈로만든 솜)



이번에는 석기 토기 외의 도구제작을 얘기하겠다. 석기와 토기를 사용할 때도, 옷을 꿰맨다든지 좀더 잔 일을 하는 데는, 석기보다 세밀(細密)한 도구가 필요(必要)했다. 여기서 조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세계 전체에 걸쳐서 석기를 쓸 때에, 골각기(骨角器... 짐승의 뼈, 뿔, 잇발 등을 가지고 만든 도구)와, 패기(貝器... 조개껍질 같은 것을 도구로 쓴 것)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나무로 만든

목기(木器)를 썼다. 그러나 먼 옛날인 석기 시대에 쓰던 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서 출토(出土)되는 유물(遺物)은 퍼 적다. 석기나 토기는 땅 속에 묻혀서 썩지 않고 남아 있었지만, 골기(骨器)나, 더욱 목기 같은 것은 썩기가 쉬운 것이어서, 남아 있는 것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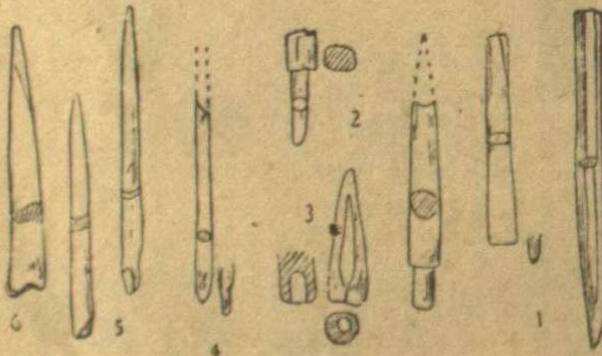
골기는 잡아 먹고 남은 짐승의 뼈에다, 조금 가공을 해서 썼던 것으로, 석기 제조보다는 훨씬 힘이 덜 들고, 여러 가지 도구로 만들어 쓰기

에 쉬웠던 것이다. 첫째 활촉(骨鏃... 골촉)을 많이 만들어 썼다. 이 실물(實物)은 조선서는 김해 패총(金海貝塚)과,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 미림리(美林里)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 (제1도 "2" "3"의 그림) 또 흔히 많이 만들어 쓴 것으로는, 골침(骨針... 바늘)인데, 흔히는 두세 치(二, 三寸) 가량으로 실체는 바늘 구멍이 있기도 하다. 보통 산패지나 석슴의 뼈 중에서 가늘고 긴 것을 갈아서 만든

또 그것이 좀더 굵은지 넓적스레 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중래 조선서 고고학(考古學)에 종사(從事... 일함)하면 사람들은, 골추(骨錐... 송곳처럼 물건 뚫는데 쓰던 것-제1도 "5"의 그림- 활촉을 때놓고 대강 비슷비슷 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구라파(歐羅巴) 같은 데서 발견된 유물이라든지-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골침(骨針)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미개민족(未開民族... 야만인)들이 고기잡을 때 쓴 것으로, 창(槍)머리 같으면서 가정자리를 톱날처럼 이를 세워서, 한 번 들어가 박히면 빠지지 않게 만든 것이다. (제2도) 이런 것 아직 조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골각기 중에는 바늘(鈎針... 조침)도



제1도 1. 골추(함북 출토) 2. 골촉(김해 패총 발굴) 3. 골촉(대동강변 발굴) 4. 골침(김해 패총) 5. 골추(김해) 6. 활촉(김해)

國立圖書館藏

“, 잇발을 가지고 구슬
처럼 장식품(裝飾品)으
로 쓰기도 했다. 조선
사는 길해에서 짐승 잇
발을 갈아서 편
편하게 만들고,
가운데에 구멍
을 뚫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
은 실용품(實用品)은 못되니까
장식품으로 쓴
것 같다고 한다.
또 조개껍질 같
은 것은 그대로
그릇으로 썼고,
장식 품으로도
썼던 것은 아직
조선서는 확실

있던 것으로, 금속기가
생길 후에도 금속기를 보
충하는 도구로 썼다. 더
욱 짐승의 뼈는, 갈, 도

끼 등의 자루로 쓰기에
편해서, 금속 병용기(金
石併用期)에서는 퍼 많
이 볼 수 있는 예다.

고 한다.

처음 구리만 제련(製
鍊)해서 기구(器具)를
만들어서 써 보니, 그 금
속이 너무 부드
러서 아무짝에도
못했다. 거기서
좀더 발달된 기
술이 즉 청동의
제련이다. 청동
제련에 대해서는
동양에서도
일찍이 중국 사
람들이 그 기술
의 방법을 썼에
다 기록(記錄)
도 해놓았다.
그러면 이 청동
은 구리(銅) 90



제3도 (인도 사람의 원시 형태의 제련 광경.)

(確實)한 예(例)를 발
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때, 한징북도 웅기(雄基)
에서는, 조개껍질에 구
멍을 뚫은 것이 조개무지
(패각)에서 발견되었
다.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것은, 그 껍질에다 나무
자루 같은 것을 잡아 매
려고 한 것으로, 그것은
지금 국자처럼 쓰던 것
에 틀림 없다고 하는 학
자도 있다.

이런 골작기의 사용
은, 석기 시대에 있어
석기를 가지고 하기 어
려운 세밀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속기(金屬器)가 생길
후에도, 금속으로 도구
를 만드는데 비해, 간편
簡便)하게 만들어 쓸 수

여태까지 얘기한 도구
의 제작은, 한 발전과정
(發展過程... 발달해 오는
길)에 있어, 과학(科學)
을 알게 되는 중간 얘기
였다. 이 금속 사용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동
(銅... 구리), 그 다음 청
동(靑銅... 구리와 주석
(錫)을 섞은 것), 철(鐵)
의 삼기로 분류(分類)한
다.

매체로 금속은 오늘날
의 문명(文明)한 민족들
은 저 오래 전부터 발명
되었다 한다. 가장 오래
된 곳으로는 인도(印度)
인데, 인도 사람들은 기
원(紀元)전 2,5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이미

4. 금속(金屬)의 발명

확실히 제련술(製鍊術-
광석(礦石)에서 금속만
분리하는 것)을 발명했
으리라고 한다. (제3
도) 그러나 지금부터
4,000년에서 3,500년
전에 제철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서쪽으로 가면
기원 전 4,500년에서
4,000년쯤에 동이 발명
사용되었으나, 가장 오
랜 곳은 에집(埃及-Egy
pt-에집트) 또는 바비
론(Babylon)이라고 하
나, 씨나이(Sinai-아라
비아 서북쪽 홍해(紅海)
에서 스에즈 운하(運河)
어귀 동쪽) 만도가 가장
오랜 동이 산지(產地)라

%, 주석(錫) 10%로 섞을
때 가장 단단하다. 인
도 사람은 일찍이 이 경
도의 제련술을 가졌고,
중국 사람은 이 제련술
에 대해서 적어 놓은 주
례(周禮)라는 글 속에서
보면, 주석을 14%에서 50
%까지 여섯 가지를 매
기했다. 다음 절인데 먼
저 인도 사람이 제일 먼
저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학자는 “철
은 아마 기원 전 천 년
까지는, 지중해(地中海)
동쪽에서 일만으로
쓰지 못했으리라.”고 말
을 했다. 그러나 매체 철
은 아제아에서부터 발견
(發見) 사용되었으리라고

한다. 더욱 시베리아(Siberia)에서 만주(滿洲)에 걸쳐서, 아세아에서도 가장 일찍 철을 발견해서 사용했다고 보겠다.

조선 사람은 대부분 원대 만주 쪽에 살아 있었던만큼, 일찍부터 제철기술을 가졌었다고 하겠다. 여러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구려(高句麗)는 만주에서 활동을 하고 중국 사람들까지 귀찮게 굴던 사람들이다. 지금 만주 방면에는 원시(原始) 형태(形態)의 제철을 하던 적끼와, 그 자취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 확실한 연대(年代)는 모른다. 이런 것을 보면, 일찍부터 만주 방면에 살던 주민들이, 제철기술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고구려 사람들은 일찍 제철을 했었다고 보겠다. 또 남쪽에 있던 조선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우리들이 오늘 조선 고대사(古代史)를 연구(研究)하는데 흔히 이용하는, 중국 삼국(三國)사 기록한 진수(陳壽)라는 이의 삼국지(三國志) 여러 분들은 삼국지라면 옛날 중국 소설을 생각할지 모르나, 소설 삼국지(三國誌)는 이 역사책 삼국지를 소설로 꾸며 놓은 것이니, 역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를, 서

로 혼동(混同)하지 않기를 바란다.) 속에 위나라(魏) 역사 책에 붙여서 동이전(東夷傳)이란 대문이 있다. 이 동이전은 곧 오늘 만주, 조선, 즉 옛날 조선 사람의 활동을 기록했다. 이 책은 지금 조선을 얘기한 기록 중에서 제일 오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외국 사람이 적은 것이어서, 잘못 쓴 것이라든지 나쁘게 말한 군데가 간간히 섞여 있는데, 대체로 고대 조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다. 좀 얘기가 길어졌으나 이 책에 보면, 고대 조선 사람들이 일찍부터 철과 다른 금속을 사용한 사실(事實)을 진한다. 동이전 중 삼한(三韓)의 마한(馬韓) 얘기에서,

“그 나라에서 철이 나고, 한(韓), 예(濊) 모두 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다 철을 사용함이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고 했다. (이 글은 내가 원책에서 여러 분이 이해하도록 뽑아서 국문으로 고친 것이다.) 여기서 당시 남쪽에 있던 조선 사람들도 철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책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오늘 남부조선 경상도 지방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에 또한 청동기, 철기가 섞여 있음

을 보겠다.

이 연대를 서력(西曆) 제 일세기(第一世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삼한(三韓) 시대 이전, 북에서는 일찍 고구려 사람들이 제철의 기술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런 사실에 맞는 연대의 연구는 아직 없었으나, 대개 2,000년을 훨씬 넘어서 옛날부터라고 하겠다.

동양사(東洋史)에서 보면 흉노(匈奴)와 동호(東胡) 등, 아세아 동북 지방의 민족은, 중국의 한 민족(漢民族)을 괴롭힌 대적(大敵)이었는데, 고구려 또한 이 동북 아세아에서 강한 민족으로, 한때 중국의 일부를 드터 쳤었다. 그러면 동양에서 일찍부터 문화를 가졌던 한 민족이, 동북 아세아 민족들에게 침략

(侵略)을 받은 것은, 누가 먼저 철을 썼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이다. 즉 오늘 만주 지방의 통구스(Tungus) 종족은, 한 민족보다 먼저 철을 썼으므로, 그 당시 한 민족보다 우수(優秀)한 무기(武器)를 사용하게 되었던 이유가, 큰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것으로서 조선 사람의 조상들인 고구려 사람이, 수당(隨唐) 때에 중국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을 알 수도 있고, 그보다 앞서 중국 사람들보다 먼저 제철 기술을 가졌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감스런 일은, 그 때에 어떻게 제철을 하였는지를 알려 주는 자료(資料)가 없어, 대강을 이렇게 이루어 생각하게 할 뿐이다.

--계속--

★유명한 소년 소설부 프린더어스의 개

조종면 번역·김용준 그림
어린 예술가 벨로와 파트라슈의 눈물겨운 이야기.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독자를 가진 소설이 이제야 여러 분 앞에 그 전부가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책값 150원
성문사 발행

이화여자대학교수 김 매리 선생 지은 어린이 피아노책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이 쉽고 빠르게 피아니스트가 되는 좋은 교습서·김 의환 선생의 그림이 또한 재미있습니다.

책값 300원
아협 발행



온천에다 익히는 특이사항 요리수

7월치에 온천 이야기가, 특히 간헐천에 대해서 난만큼, 이번에도 이상한 온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간헐천 중에서 가장 세계에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맘모스 온천입니다. 이 온천도 7월치에 말씀드린 애몬스톤 공원 속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4.5개 개의 온천이 된 곳에 모여, 서로 경쟁을 하며 끓고 있

을 쫓으며, 아주 아름답고 넓은 담(壙)이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숲의 못에서 온천이 끓으면, 그것이 넘쳐 흘러 내려오는 모퉁에, 넓고 평평한, 마치 돌로 만든 방바닥과같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여러 개 층층으로 되어 보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은 모두가 미끄럽게 만들만하고, 겨울같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 측면(側面)에는 고운 줄을 늘어뜨린 것 같이 불

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중 어떤 부분은, 끓은 물 속에서 피는 부정초(藻)꽃이, 빨강, 보라, 검정, 초록, 노랑, 피랑 등, 여러 가지 고운 색으로 피었기 때문에, 물 속은 마치 아름다운 꽃밭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언제든지 그곳은 끓은 물이 넘쳐 흘러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이상한지. 그리고 그 돌단의 단 빛도, 모두 선노랑 빛인 크림색으로 된 곳에, 아름다운 다색(茶色)의 줄이 있고, 그렇지 않

으면 대리석 같이 반짝이는 곳에, 일곱 가지 빛깔과, 또 아주 전체가 빨강기만 한 곳이 있어서, 무어라 형언(形言)할 수 없을 만큼 신비(神祕)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온천으로 큰 호수(湖水)가 된 곳, 또는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곳, 맘모스(오랜 옛날에 구아대륙(歐亞大陸)북쪽에 살던 코끼리 종류의 하나)라 하는, 큰 코끼리 모양을 한 바위 위를, 마치 그

코끼리의 긴 털 같이 되어 흐르는 온천 등, 거의(奇異)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 제일 이상한 것은, 호수 속에서 끓고 있는 온천입니다. 이것만 보면 그리 이상할 것도 없지만, 큰 호수 속에 아주 조금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이러야 겨우 5.6일이 서 있을 정도이며, 이 섬 한 가운데 온천의 끓은 수물이 있습니다. 그곳엔 언제나 물이 쫄쫄 끓고 있으나, 다량히도 섬은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서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호수는 아주 깨끗한 거울 같이 아름다운 호수인데, 그 속엔 송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낚시질을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더욱 재미나는 것은, 잡은 생선을 낚시대에 매달면, 이 온천의 우물 속에 던지면, 당장 익어서, 금세 먹게 됩니다. 얼마나 이상하고도 신기한 일입니까!

부 다 다 부





11, 강가루와 고슴도치

주요 섭

“엄마 저것 좀 봐. 뱃속에 새끼가 머리만 삐 내밀고 있어.” 하고 옥미가 어머니 손을 지근 지근했습니다.

“참, 거기 강가루가 있구나.”

다른 아이들도 와아하고 달려 들었습니다. 한 계집애가 인형을 안고 있는데, 강가루는,

“너 나 좀 봐라. 이렇게 나모양 뱃가죽 속에다 넣어 가지고 다니면 오죽이나 편하니?” 하는 듯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야 그것 참 묘하다. 애기를 뱃가죽 속에 넣고 기차를 타면, 차포 한 장은 인사도 되니 경제도 되고, 또 두 손으로는 가방을 들 수 있으니 짐꾼도 소용없지...홍” 하고 삼촌이 우췌운 소리를 해서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 새끼는 뱃속에서 영 나오지 못하나?” 하고 옥미가 물으니, 삼촌이,

“왜 못나와, 마음대로 나왔다가 들어 갔다 하지. 새끼가 다리가 아프면 옥주처럼 엎어 달라고 조르지 않고, 뱃속에 들어 가겠다고 파고 들걸. 포수가 강가루를 잡을 때는 총으로 쓰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자꾸만 쫓아가지. 강가루는 자꾸 뛰다가 아주 지쳐 버릴 지경이 되면, 앞발로 얼른 새끼를 집어 던지고 달아난단다.”

“엄마가 나쁜데. 저 혼자만 살겠다고 새끼를 내던지고 도망가는 것.” 하고 옥미가 욕을 했습니다.

“아니야, 저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수가 새끼 강가루는 그냥 부고 에미만 따라 가면, 새끼는 얼른 풀숲에 숨어 버리고, 에미는 몸이 가벼워져서 더 빨리 도망할 수가 있지 않아.”

“응 그래!”

“강가루는 손이 풀이고 다리가 세 개나 되는 셈이다. 왜 그런고 하니 강가루 꼬리는 지방이 태워서 되어서, 설 때에는 두 다리와 꼬리로 받치고, 암만 오래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단 말야. 또 그 뒷다리가 기운이 세서 원수를 뒷다리로 걸어치면, 웬만한 것은 기절해 버리고 말고, 또 강가로 가면 개를 앞발로 부잡아서 물 속에다 넣고 날려서, 개가 물 속에서 숨이 막혀 죽는 수가 많다. 강가루는 종류가 아주 많은데, 이렇게 큰 종자도 있고, 토끼만 밤에 안되는 것도 있고, 아주 귀 새끼만 한 종자도 있단다. 너희들 강가루 고향이 어디지 아니?”

“그럼요. 오오스트라리아에서 살지요.”

“그렇다. 강가루는 오오스트



방양 나무

일어나 그 밤에 열대 지방에는, 방양이란 이상한 나무가 있습니다. 맨 가운데 있는 줄기 외에 많은 뿌리가 기둥모양 즐비하게 늘어 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의 나무지만, 얼른 보면 몇십개의 나무가 모인 나무숲 같습니다. 이것이 이 나무의 특성(特性)이다. 큰 것과 아주 특별하게 성질이 틀릴 것)으로, 처음에는 한 개의 밑둥의 주위에 수평(水平...물 위와 같이 평평한 모양)으로 펼쳐 있는 모든 가지에서, 많은 기근(氣根...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중에 늘어져 공기 속의 불기를

빨아 들이는 뿌리)을 늘어뜨리고, 그것이 차차 차차 자라 땅에 닿아서 기둥 같이 되는 것입니다. 기근의 굵은 것은 밑둥 같은 모양, 가는 것은 덩쿨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나, 모두 땅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만들고, 거기서 양분(養分)을 빨아 들이므로, 자꾸자꾸 가지와 잎이 우거집니다. 그래서 큰 것은 한 개의 나무가 1,000 평 이상의 땅을 덮는 수목

타리아 이외에는 한 마리도 없다. 켄가유·우가 처음으로 오오스·트라리아를 발견했는데, 그들이 상륙하여 이 이상스러운 짐승을 처음 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영어로 “켄유 텔어쓰 더 베이 오부 더즈 애너물”(이 짐승의 이름이 무어요?) 하고 물으니까, 그 본토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니까 대답은 못하고, 그들을 흉내 내느라고 “켄가유”라고 대답했더니, 영국 사람들이 “응 켄가루”하고, 그 짐승의 이름을 켄가루라고 불렀다고 한다.”



“응 그건 고슴도치라는 것이야. 저렇게 온 몸에 가시가 돌아서, 오이 발에 가서 덩굴어서 오이가 더덕더덕 붙으면, 제 굴로 들어 가서 먹는다. 그 가시가 긴 놈은 한 치 이상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놈한테 떨어면 그야말로 큰 일이다. 이놈은 또 뒷걸음 걸치는 재주가 있으므로 위험하거든. 고슴도치가 빨리 떨어적으로는 꼬리가 땅에 닿아서 소리가 난단다.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고슴도치가 그 가시로 활을 쏘듯 원수를 향하여 쏜다고 하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고, 가시가 뽑아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러한 짐작

을 하는 것이지.”

이 때 풍소리가 멍멍 울려 왔습니다.

“이크, 시간이 다 되었다고 나가라는 종이 울린다. 더러 못 본 때도 있지만 오늘은 이만 하고 나가자. 오늘은 모두 피곤해서, 우는 오늘 밤에 오줌을 쌀지도 모르니 조심해라. 밤에 절적에는 모두들 동물원 꿈이나 꾸어라. 동물원 꿈이 참말 동물원보다 더 재미있느니라.” 하고 삼촌이 말씀하시고 다 함께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끝)

(그림·김 의 환)

그러나 아이들은 삼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모두들 정충장승 뛰면서,

“저것 봐라 저것 봐. 켄가루 새끼가 밖으로 나왔다. 아이고 것 참 예쁘기도 하다.” 하고 떠들었습니다.

광호는 그 때 벌써 다음 간으로 갔습니다.

“야 저기 켄 가시 뽕링이가 있다.”

“가시 뽕링이라니?”

“그럼 저기 뭐요?”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있는 것은, 망양 나무로는 그

인도에 있는 제일 큰 것은, 주위 646에 터나 되는 곳까지 퍼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히아이 호놀루 무시의 하이키 공

미 크지는 않지만, 이름 적는 곳이 더울고 바가울만큼 강한 햇볕을 피해서, 서늘한 그 나무 그늘에서 아이스크림 경수가 늘어 섰고, 많은 자동차가 뿔을 피하며 손님들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망양이란 이름의 시초는, 서늘한 이 나무 그늘 밑에서, 망양이라고 일컫는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는 인도의 상인들이, 정을 벌린 까닭에 이런 이름으로 칭 거러라고 합니다.

새소식

칼치 비늘로 진주 (眞珠)를 만드다

국립 수산 시험장 (國立水産試驗場) 여수 분소 (麗水分所)에서는, 그 동안 연구 중이던 인조 진주 (人造眞珠)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것은 여수 근처 바닷가에서 무진장으로 잡히는 칼치생선의 비늘로 만드는 것으로, 일제시대에는 잡히는 칼치는 모두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조선 사람들에 자기배를 끼리만 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법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태양이 되었다 한다. 그것을 해방 후에 이 시험장에서 열심이 연구하여 이번에 성공한 것으로, 진주의 절반은 벌써 중앙 당국 (中央當局)에 제출 하였으며, 앞으로는 외국에도 수출한 것이라 한다. 그러고 지금 이것을 더 연구하여 세무로이드 공업 원료 (原料)로도 쓸 수 있게 연구 중이라 한다.

런던 올림픽에 조선은 24 위(位)

지난 8월 14일 막이 닫힌 제 14회 올림픽 대회에서, 우리 조선은 62 나라 가운데 24 위라는 그리 좋지 못한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우리의 실망은 전체 성적에 24 위를 했다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물론 세계 각국 사람들이 크게 기대를 했던 마라톤에 보기 좋게 실패했다는 그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겠지만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며,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라톤에 실패한 조선은 역도 (力道)의 김 성집 선수와, 권투의 한 수안 선수가 각각 용감히 싸워 3위를 차지해서, 겨우 런던 하월에 대극기를 휘날리게 한 것은, 다소 우리의 실망을 풀게 하였다.

그런데 다음번 제 15회 올림픽 대회는, 1,952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열기로 되었다고 하니, 우리는 힘을 길러 그 때에는 이번과 같은 실패가 없도록 하자.

항해(航海)조선의 자랑 신 성모씨 돌아온다

항해술(航海術)로 세계에 이름난 신 성모씨는 올해 58세로, 인도양 바다에서 썩어빠져 배를 달리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영국 영사관을 통하여 이분의 외아들 영구씨에게 전하여 왔다고 한다.

신 성모씨는 경남 (慶南) 의령 (宜寧)에서 나서, 일찍이 큰 뜻을 품고 중국으로 건너가, 외국인으로는 절대로 입학할 수 없다는 상해 요충 상선학교 (吳淞商船學校)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중국 군함에서 일을 보시다가, 다시 지금부터 26년 전에 런던으로 건너가 런던에 있는 항해 대학(航海大學)을 졸업한 것이다. 대학 다닐 때에, 세계의 이야기 꺼리가 되었던 일만봉 (一萬那) 현상 대서양 금괴 (金塊) 운반 경쟁 항해에 일등을 하여 상을 탄 일도 있고, 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주로 인도양과 대서양을 항해하였는데, 전쟁이 일어난 후 소식이 끊어져 생존 (生存)이 궁금하던 차, 이번에 기쁜이 온 것으로, 조선에 돌아오시면, 조선의 바다를 도맡아 전 세계에 해양 조선의 용기를 펼쳐실 것이라 한다.



동요 백 일 흥

서울 수송 국민교 3년

여 순 배

피집 앞뜰에 백일흥 하나
 바다 물을 주는 백일흥 하나
 생이 귀으머다 야단을 맞고
 같이 빨개 도망을 가던
 피집 앞뜰에 백일흥 하나.



소화생각품집

동요 토끼

서울 정운 국민교 4년

김 종 상



우리집 속토끼는 아주 예뻐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랐느냐고
 과일끼 꿀짓꿀짓 인사합니다.

우리집 속토끼는 제부쟁이요
 저녁에 잘때면 잘자라고
 빨간눈 깜짝깜짝 인사합니다.

동요 초가집

서울 송파 국민교 5년

홍 종 원

우리 집은 초가집
 산골 밭에 초가집
 봄이 되면 제비 와서
 새끼지는 우리 집.

호박꽃이 노랑제
 대롱대롱 피어서
 만발하게 피어서
 꿀벌 오는 우리 집.

노랑나비 흰나비
 모두 나와 놀머는
 앞마당은 꽃밭이요
 뒷마당은 놀이터.

동요 맛보기

박 영 종

7

귀가 불어도 짹

동요의 맛을 보기도 합니다.
 이란 짜거나, 말거나, 쓰거나,
 은 것이므로, 동요의 짜고 쓴
 을 피아한다는 것은, 그 속 뜻
 알피 보자는 것이지.

우선 동요를 환전 뽑아 봅시다.

뚜뚜 숨어라
 머리카라 뿔라
 귀가 불어도 짹

구전(口傳) 동요입니다. 구전
 이란 옛날부터 입으로 전해 내려
 오는 것이지. 허니 구전 동요는
 누가, 어느 때, 어디서 지은 줄
 도 모르게, 하늘이나 땅이나 초
 목이 저절로 생기듯이, 저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또 할아
 버지가.....어릴 때 부르다가 부
 르다가 어른이 되면, 그 할아버
 지의 어린 아드님이 불러 받아 부

르고, 또 그 분이 어른이 되
 면, 그 분의 아드님이 이어 받아
 부르므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어릴적 부르던 것을 우
 미가 다시 목정을 높이어 부르는
 노래지.

뚜뚜 숨어라
 머리카라 뿔라

송박꼭질의 노래입니다. 송박
 꼭질은 환한 달밤에 하기십상 좋
 습니다. 달밤은 잠으로 여러 분
 아기의 세계지. 등불이 없어도
 마당은 하얗게 밝은데, 구석진 곳
 에는 그냥 밤의 어둠이 머물러
 서, 매발도 매물도 꿀목도 은근
 한 속에 꿈을 꾸듯한 밝은빛 어두
 운 꿈의 나라! 그 짧은 밤이슬
 이 오는 여름 밤에 동무끼리 모
 어서 하는 송박꼭질....

안마방 거중배 얼굴을 붙이고
 하나 둘... 날을 헤이는 슬래의 목
 소리가 곧 등 뒤를 따라 오는 것만
 같아, 쉬쉬 일른일른 종종걸음을
 쳐서 숨고 나면, 이번에는 내가
 숨어 있는 방앗간 가를 가만 가
 만 찾아 오는 슬래의 발자국 소
 리. 그 때의 가슴이 팔쿵팔쿵하
 는 안타가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뿔라.'

머리카락 한 오리 안보이도록
 숨었어도 그때도 불안스러워,

쥐가 붙어도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 때의 안타가움.

여러 분은 이 노래의 맛이 무언
 지 아십니까? 그 재미가 아기자
 기하면서 가슴이 팔쿵팔쿵하는 안
 타가움, 그것이 곧 이 노래에 스
 며 있는 맛입니다.

이 옛날 노래를 좀 더 재미나게
 꾸며 놓은 것이, 다음 전 양봉(全
 良鳳) 선생의 노래입니다.

나블나블 다방머리
 머리카락 뿔라
 비요비요 병아리처럼

엄마 품에 숨어라

꽃이야기 오손도손
 눈을 뜨면 안된다

다방머리 숨어라
 꼭꼭 숨어라

나블나블 종종머리
 머리카락 뿔라

잘금살금 새양귀처럼
 방앗간에 숨어라

옛이야기 소곤소곤
 말을 하면 못듣다

종종머리 숨어라
 꼭꼭 숨어라

(숨박꼭질 전 양봉)

다방머리는 여러 분의 다보록
 하고 짧은 머리. 그 다보록한 다
 방머리의 나블나블하는 머리카락
 이 안보이도록 머리를 드욱 과문
 고, 아기는 엄마 품에 숨었지.
 병아리가 암탉 날개죽지 밑에 숨
 듯. 숨어서 엄마하고 소곤속닥
 얘기를 해도 못쓰지. 슬래가 눈
 을 등잔불처럼 해서 찾고 있는
 데...

종종머리는 누나의 머리지. 요
 즘음에는 제집아이도 머리를 이
 발소에가서 잘롱 잘라서 꺾지만,

엄마가 누나만할 때는, 그때는 옛
 날이어서 엄마는 머리를 한 권에
 세 가닥씩 뿔라, 그것을 뒤에 모
 아서 땡기를 드렸었다. 그 땡간
 땡기를 팔락이며 엄마도 마을 아
 이들하고 숨박꼭질을 여간 했어
 야지. 땡기가 팔랑거리는 머리
 를 방앗간 쪼갯 사이에 꼭 박고,
 잘금살금 숨기내기하는 프로그램 세
 양귀 모양입니다. 옆에 숨은 동
 무랑 옛날 이야기처럼 숨도 크게
 못쉬는데... 그러면 이내 가까워
 오는 슬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
 니다. 아마 누나가 숨었는 방앗
 간으로 오는게지. 이크 말아나야
 지.

그럼 어디에 숨을까?

터밭은 어때?

못써. 못써. 삼주 짝뿔 밭앗단
 엄마한테 경치게.

그럼 꽃밭은 어때?

안돼, 꽃밭은. 꽃모종을 밟으
 면 어찌나.

그럼 어찌나 울타리 뒤에 숨을
 까?

울타리도 안되지. 호박 순이
 나잖아.

그럼 어찌나 어찌나 어디에 숨
 을까.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가 고 기덕)

○ 우 포

언니...애 수들

아. 우포막

지를 왜 반

동장만 붙였

니?

동생...그 속에 든 편지는 반 밖에
 안했예요. (서울 덕수교 3년
 박 정서)



○ 만년 되는 날

갑...거북은 만년을 산다고들 말
 하기에 사왔더니, 그날로 죽었
 네그려.

을... 자네 운수가 나빠서 죽은
 게지.

갑...아냐. 이
 사람아. 그
 날이 만년되

는 날이든가봐. (서울 중로 5



터밭에는 안된다
 실루 씨앗 밟는다
 꽃밭에는 안된다
 꽃모퉁이를 밟는다
 울라라도 안된다
 조박 숲을 밟는다
 작작 숨어라
 작작 숨어라
 가까이중은 찾았다
 방앗간에 숨었다
 금박쟁이 찾았다
 기둥 뒤에 숨었다

(숨박꼭질 윤 부진)

숨바귀리는 방앗간에 숨었다
 들쥐고, 금박이 적힌 빨간 댕기는
 기둥 뒤에 숨었다 잡혔구나.

이처럼 봄은 꽃처럼 고소고소
 새미나는 숨박꼭질은, 쥐들도 저
 이끼리 똥무랑 어울려서 하고 있
 을까요? 하고 말고요. 밤에 여
 미 분이 속제라도 풀려고 책상 앞
 에 앉았으면, 반자 속에서 쥐들
 이 야만일 때가 있지. 그 때, 쥐
 들이 숨박꼭질하는 셈입니다. 그
 러나

루루루루 터
 반자 속에서 루루루루 터
 쥐가 숨박꼭질하지

숨박꼭질 하다가 쥐 한 마리
 슬래한데 잡혔지
 잠긴 했어도 캄캄해서
 누가 누구지 알 수 없지

(쥐의 숨박꼭질 윤 석중)

윤 석중선생님 노래입니다. 참
 말 반자속은 어두워서 누가 누구
 지 못할거야. 쥐뿐 아니라 토끼
 도 할테지. 깊은 산골 시냇물 팔
 쫄쫄 흐르는 토끼동네, 하얀 들
 다리 건너, 초목 잔디밭에 모여
 서

“간다. 찾으러 간다”

“오냐 오냐”

참 재미나게 할테지. 하지만
 토끼는 워낙 귀가 길어서 어디 숨
 어도 이내 잡히고 말걸. 귀가 달
 이지.

토끼 동무 모여서
 숨박꼭질 한단다

바위 뒤에 숨었다
 하얀귀 보인다

나무 뒤에 숨었다
 하얀 귀 보인다

숨기는 숨어도
 하얀 귀가 보여서
 애구 슬래한데
 이내 잡혔다

(토끼와 쥐 박 영중)

밭으로 하나만 더,
 숨어라 숨어라 퐁퐁
 숨어라 숨어라 퐁퐁
 반딧불은 퐁퐁
 수풀 속에 숨어라
 애기별은 퐁퐁
 구름 속에 숨어라
 아이들은 퐁퐁
 마음대루 숨어라
 숨어라 숨어라 퐁퐁
 숨어라 숨어라 퐁퐁

(숨박꼭질 강 소진)

반디나 벌님은 수풀 속이나,
 구름장 속에만 숨는데, 여러 분
 은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수풀
 속에도 담모퉁이에도 부엌에도,
 책상 밑에도 어디든지 마음대로
 숨을 수 있지. 얼마나 여러 분은
 벌님보다 반디보다 더 넓고 큰 곳
 에서 더 재미나는 숨박꼭질을 할
 수 있을까.

—계 속—

○ 비

들꽃이...비가 하늘에서 내리게
 잘 하련이 됐지?
 우슬이...어디서?
 들꽃이...아니 이 바보야. 땅에서
 나왔어봐.
 어떻게 우슬
 을 받고 다
 너도나 말
 아...서울 염



성고 6년 왕 은식)

○ 명 함

손님...이리 오나라!
 아이...누구를 찾으십니까?
 손님...너의 아버지 계시냐?
 아이...안계십니다.
 손님은 명함을 꺼내서 아이를
 주면서
 손님...너 이 명함을 잘 두었다가
 아버지 오시거든 드려라.

아이...우리
 아버지께
 게도 명
 함은 잘
 으니까
 드로 가져가세요.



손님...???(서울 필재고 6년
 이 수영)

부 부 부

少年三国志

(8) 박 태 원

그림 · 김 기 창

제 5 장 천 리 (千里) 를 간 다 (2)

六, 고성(古城)에서

오래 기다릴 것도 없었다.

조 조 군사가 풍우 같이 몰려 드는데, 보니, 앞 선 장수는 곧 채 양(蔡陽)이다. 운장과 본래 사이가 좋지 못하여, 그가 허도를 떠날 때에도, 뒤를 쫓아가 사로잡아 오겠다고 조 조에게 자원(自願) 하더니, 기어코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운장이 말을 박차 앞으로 나가자, 채 양은 소리를 가담들어 꾸짖는다.

“네 이 놈! 내 생질(甥姪) 건기를 황하 도구에서 죽이고 여기까지 도망하여 왔고나! 내, 너를 죽여서 기어코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니 그리 알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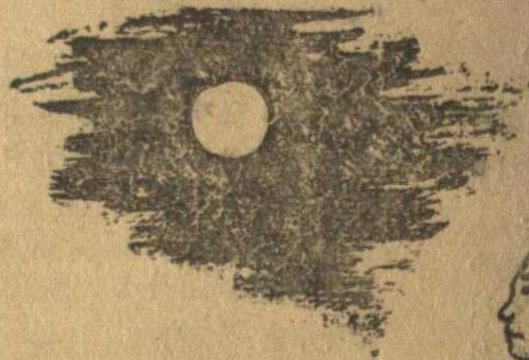
말을 몰아 바로 달려드니, 이때, 장 비는 몸소 복채를 들고 북을 친다.

운장은 갑담제하고 그를 맞아, 한 번 천 북 소리가 미쳐 끝나기 전에, 그의 머리를 베어 팔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도망하는 군사 하나를 잡아다, 채 양이가 이곳에 온 까닭을 물었다.

군사는 아뢰다.

“장군께서 저의 생질되는 건기를 죽이셨다는 말을 듣자, 크

게 노해서, 승상의 분부도 기다리지 않고, 이처럼 장군의 뒤를 따라 온 것이랍니다.”



운장이 즉시 그 군사를 시켜, 장 비 앞으로 가서 그대로 말하게 하니, 장 비는 운장이 허도에서 지낼적 일을 낱낱이 물어 보고, 그제야 비로소 의혹이 풀려, 즉시 두 부인과 운장을 성 안으로 청하여 들인다.

각기 자리를 잡고 앉자, 두 부인은, 그 사이 운장의 지낸 일을 일일이 이야기하였다.

듣고 나자, 장 비는 목을 놓아 울며, 운장 앞으로 나가서 절을 드렸다.

그러자 군사가 들어 와서 보하니, 남문(南門) 밖에 장수 두 명이 십여 명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장 비를 찾는다 고 한다. 장 비가 곧 나가 보니, 그들은 뜻밖에도 유 현덕의 처남되는 미 추

(糜竺) 과 미 방(糜芳) 이다.

그들 형제는, 서주에서 서로 헤어진 뒤로, 잠시 고향에 돌아가 있다가, 얼마 전에, 장이라는 성을 가진 장군으로 이리이러하게

생긴 이가, 지금 고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문을 전하여 듣고, 동침 없이 장



리리라 하여 그러함 찾아온 것이다.

장 비는 진정 반가워, 즉시 그들을 안으로 청하여 들이고, 크게 술치를 베풀어, 이 날은 장수나 군사나 모두가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며 즐겼다.

이튿날 윤장이 기주로 현덕을 찾아 가려 하니, 장 비는 저도 같이 나서겠다 한다.

그러나 윤장은,

“이제는, 이 고성 하나가 단 저 우리들의 몸 붙일 곳인데, 훌륭히 버릴 수가 있단 말이나? 너는 두 분 아주머님을 모시고 이곳을 지키고 있거라.”

일르고, 다음에 다시 주 창을 불러 물었다.

“화우산에 남아 있는 네 부하가 모두 몇 명이나 되느냐?”

“한 사오백 명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곧 와우산으로 가서, 그 무리들을 베리고 큰 길로 나와서 나를 기다리도록 하여라.”

이렇듯 분부하기를 마치고, 윤장은 손 건과 함께 군사 이십 여 명만 거느리고 하북으로 갔다.

그러나 기주 성 밖에 이르자, 손 건이 말한다.

“원 소가 사랑하는 장수 안 랑을 주를 장군께서 모두 죽이신 터이라, 원 소가 진정으로 장군을 반가워 할 리가 없습니다. 즉시 무슨 변고라도 생긴다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장군은 성으로 들어 가지 마시고, 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제가 후자 들어 가서 유 장군을 모셔 내 오겠습니다.”

윤장은 그 말을 듣지 않고,

★ 59 호까지의 대감 이야기 ★

중국 후한 말년(中國 後漢末年) 나라의 권세는 흠박 승상 조조(丞相 曹操)에게로 몰아가고, 전하는 잔것 어지러웠다.

때에 유 비(劉備), 관 우(關羽), 장 비(張飛)의 세사람은, 북송아꽃 단발한 등산에서 의형제(義兄弟)를 모고, 마음을 한 가지로 하여 조조를 치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 맹세하였던 것이나, 서주(徐州) 싸움에 크게 지고, 관 우는 마침내 유 비의 두 부인과 함께 조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러나 본래 의리를 중하게 여기는 관 우는, 그의 청님 유 비가 원 소(袁紹)에게 몸을 위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두 부인을 모시고 마침내 오관(五關)을 돌파(突破)하여, 황하(黃河)를 건넜다.

한곳에 이르니 고성(古城)이 있고 촌사람에게 물어 보니, 성을 지키고 있는 장수는 바로 장 비라 한다.

관 우는 마을에 크게 기뻐한다. 서주 싸움에 풀풀이 되어진 뒤 그의 소식을 모르면더니, 여기서 서로 만날 줄이야... (…)

그는 곧 사람을 성으로 보내

자기는 할 마을에 한 정원(莊院)을 찾아 가서, 그곳에서 며칠 묵기로 하였다.

손 건은 즉시 저 혼자 말을 쥘 처 성대로 들어 가서 현덕을 보고, 윤장과 익덕의 일을 말한 나

자기가 두 부인을 모시고 이곳까지 이른 뜻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반가이 나와서 맛을 잘 알았던 장 비가, 또더이 노기등등하여 창을 뽑아들고 달려들어 자기를 베르려 한다.

관 우는 깜짝 놀랐다.

“네 이제 무슨 것이냐? 전에 우리가 한 맹세를 잊었느냐?”

그러나 장 비는 꾸짖는다.

“의리 없는 놈이 조조한테 항복을 하고, 이 때에는 또 나를 잡으려 왔구나.”

“조조에게 항복하였다는 것은 네가 모르는 소리다. 또 내가 너를 잡으려 왔다면 어떻게 군사를 안배하고 왔겠느냐?”

“군사는 저기서 오지 않는나?”

관 우가 돌아다 보니, 자기를 잡으려는 조조의 군사 한 배가, 과연 티끌이 자욱하게 말을 몰아 들어 온다.

“장 비야, 내 저기 오는 장수를 죽여 내 의혹(疑惑)을 풀어 주마.”

관 우는 청룡도(靑龍刀)를 높이 들며 나섰다.

음, 함께 겨르를 정하고, 원 소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조조의 형제가 저서, 우리 힘으로는 좀처럼 치기가 어렵소이다. 나보게는 지금 정주(荊州) 땅의 후포(劉表)가, 군

사도 날때도 양식도 넉넉한
더이니! 그와 서로 약속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조 조를 치
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오.”
원 소는 마음에 그럴법하게 생
각하여, 현덕을 보고,

“그러면 현덕공이 좀 수고스러
우시지만, 형주로 가서 군사를
청하여 오도록 하시오.”
하고 당부한다.

이리하여 현덕은 그 날로 손
전과 함께 기주를 떠났다.

성을 나서서 윤장이 유숙하고
있는 정원을 찾아 가니, 윤장은
황망히 문에 나와 열드리려 절하며
현덕의 손을 잡고 느껴 울기를 마
지 않는다.

함께 안으로 들어 가, 초당(草
堂)에 자리를 잡고 앉자, 윤장은
주인 부자(父子)를 청하여 현덕
에게 뵈게 하였다.

그 집 주인은 관 정(關定)이라
는 사람으로, 판 아들 관 념(關寧)
은 글하는 선비요, 둘째 아들 관 평
(關平)은 무예를 익히는 터이다.

서로 인사수작이 끝나자, 주인
은 자기의 둘째 아들 관 평으로
윤장을 따르게 하고 싶다 칭한
다.

현덕은 주인에게 물었다.

“둘째 자제가 울에 몇 살이요
?”

“열 여덟 살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우가 아직 아
들이 없으니, 둘째 자제로 내
아우 아들을 삼게 하는 것이 어
떠하오?”

주인은 크게 기뻐하여, 곧 관 평
에게 명하여, 관 윤장을 아버지
로 바꿀고, 유 현덕을 백부(伯父)
로 부르게 하였다.

이튿날, 일행은 그곳을 떠나 와
우산 편을 바라보고 길을 계속하였

다.

그러나 미처 이르기 전에, 문
득 저 편에서 주 창이 수십 명의
무리를 이끌고 오는데, 웬 일인
지 몸에 두어 군데나 상처를 입
고 있다.

관 윤장은 곧 그를 앞으로 불
러, 유 현덕에게 뵈게 한 다음,
어찌 된 까닭을 물으니, 주 창은
말한다.

“제가 와우산으로 가보니, 어
떠한 장수 하나가 산채(山寨)
를 점령하고 있기로, 그와 어
우어져 싸우다가 몸에 세 군데
나 창을 맞고, 하는 수 없이 장
군께 이 말씀을 올리러 오는
걸입니다.”

“그 장수가 어떻게 생겼으며,
대체 이름은 뭐라더냐?”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주 웅장
합니다.”

일행은 그 길로 와우산으로 갔
다.

산 밑에 이르자, 주 창은 곧 산
위를 향하고 어지러이 목지거리
를 하였다. 그 장수가 내려다 보
고 한 번 픽 웃으며, 무리들을 거
느리고 말을 달려 내려 온다.

현덕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다
가, 곧 말을 앞으로 내어 나가며
큰 소리로 불렀다.

“오는 장수가 혹시 조 자룡(趙
子龍)이나 아닌가?”

그의 말을 듣자, 그 장수는 눈
을 들어 현덕을 자세히 살펴어 보
고, 분주히 말에서 내려 길 가에
배복(拜伏)한다.

제 6 장 손 씨 형 제 (孫氏兄弟)

한편 원 소는 현덕이 형주에 가
서 군사를 청하여 오마 하고 떠
난 채, 끝끝내 돌아 오지 않는 것
을 보자 크게 노하였다.

“이런 제질한 놈이 어디 있단

조 자룡은 상산(常山) 사람으
로, 이름은 윤(雲)이요, 자룡
(子龍)은 그의 자(字)다. 본
래 북평태수 공손 권(北平太守
公孫瓚)의 수하 장수로 있다가,
공손 권이 원 소와 싸우다 죽은
뒤로 몸을 의탁할 길이 없어, 각
처로 떠돌아 다니다가, 이번에
우연히 이곳 와우산에 이르러 적
굴을 보고, 잠시 몸을 붙여 있거
로 한 것이다.

유 현덕은 전에 공손 권에게서
처음으로 그를 만나 보고, 그 인
물과 무예를 은근히 사랑하여 마
지 았았고, 조 윤도 역시 유 현덕
을 당대의 영웅이라 추앙(推仰)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던 터이라,
이제 우연히 이곳에서 서로 만
나자, 두 사람은 다 같이 전정으
로 반가웠다.

그 즉시 산채를 불살라 버리고
조 윤은 수하 무리들을 거느리고
현덕을 따라 고성으로 갔다.

일행이 고성에 이른 날, 그곳
에 크나큰 잔치가 벌어졌다.

서주에서 싸움에 패하여 모두
떨떨이 헤어진 뒤로, 오늘에야
처음으로 유 비·관 우·장 비 삼
형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더구나 수하 장수들에게도 누구라
빠진 이가 없으며, 또 새로이 범
같은 장수 조 윤과 관 평·주 창
의 무리를 얻어 기쁨이 미할 제
없다.

그들은 연하여 수일을 취하도
록 마시며 즐겼다.

말하고!...”

그는 곧 군사를 일으키어 유 비
의 뒤를 쫓아가 치려 하였다.
그러나 모사들이 간(諫)한다.

“유 비는 실상 그다지 근심할



그의 나이 약전(弱冠)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럴 듯 뜻도 강하였거니와, 또한 용맹이 날라울고 무예가 남에게 뛰어났다.

그는 먼저 양주자사 유요(揚州刺史劉翹)를 쳤다. 당시 손책의 외숙(外叔)되는 오경(吳景)이라는 사람이 단양태수(丹陽太守)이었는데, 대양 유요에게 침략(進迫)을 받고 있다 하므로, 우선 그 철수를 살기 위함이다.

첫번 신정령(神亭嶺) 싸움에 손책은 크게 이기

고, 수일 지나 우저(牛渚)라는 곳에서, 그는 다시 유요의 군사와 만났다.

양편 군사가 서로 전을 치고 대하자, 유요의 수하 장수 주미(于糜)가 말을 내달는다. 손책은 물소 말을 물어 그를 맞아서 싸웠다.

그러나 물론 우미 따위는 그의 적수(敵手)가 아니다. 서로 싸우기 삼합이 못되어 손책은 그를 사로잡아서 한 옆에 끼고, 유요의 말머리를 들리어 자기의 필승으로 칭하였다.

이 모양을 바라보던 유요의 장수 번능(樊能)이, 말을 잡아 잡고 그 뒤를 급히 쫓는다.

군사들이 탄짜 놀라 크게 뛰었다.

“뒤에 쫓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에 손책이 비호호 크게 말을 들리어 보니, 이때 마포 끝 위까지 쫓아 온 번능이, 말을 번쩍 들며 마학 저거리듯 한쪽

것이 못되나, 조조는 실로 강적(強敵)이니 하루 바빠 없애버려야 하오리다. 저희들 생각에는 강동(江東)의 손책(孫策)이 형세가 심히 웅장하니, 즉시 사람을 강동으로 보내서, 그와 약속하시고 함께 조조를 치시는 것이 옳은 까보이다.”

조조는 그 의견을 옳게 생각하여, 곧 진진(陳震)이라는 사람을 시켜 강동으로 가서 글을 친하게 하였다.

손책이란 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장사 태수 손견(長沙太守孫堅)의 아들로, 자를 백번(伯符)라 한다.

아버지 손견이 형중 자사 유표(兖州刺史劉表)와 싸우다 죽은 뒤로, 그는 한때 원술(袁術)에게로 가서 몸을 의탁하고 지냈었다. 그러나 본래 위인이 영특하고, 또 마음에 항상 큰 뜻을 품고

있는 그다. 결코 언제까지나 남의 수하에서 구구스러이 지내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아버님은 그렇듯 영웅이시었는데, 나는 이처럼 구차스럽게 남한테 몸을 의탁하고 있던 말이나?……)

어느 말많은 밤에, 손책은 홀로 뜰을 거닐다가, 문득 생각이 이에 미치자, 그만 저도 모르게 목을 놓아 크게 울었다.

그러나 단지 목을 놓아 운다고 저의 앞길이 저절로 열리어 줄 터가 없다.

그는 큰 울음을 그친 다음, (아니다! 내 언제까지나 여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다! 하루 바빠 이 곳을 떠나서, 속에 품은 큰 뜻을 한번 천하에 펴보자!……)

이렇게 마음에 굳이 결단하고, 손책은 이튿날 원술에게 군사 삼천을 얻어 거느리고, 마침내 수춘성(壽春城)을 떠났다. 벽에

판을 지누르 적으려 한다.

손 책은 소리를 가다듬어 한마디 크게 꾸짖었다. 이를 형용하면 마치 백력(霹靂)과 다름이 없다. 번 농은 손 책의 호통바람에 소스라쳐 놀라, 그때로 말에서 떨어지며 머리가 깨어져 죽었다.

손 책이 또 옆에 건 우미들 보니, 그도 이미 숨이 끊어진 뒤다.

이렇듯 잠간 사이에 한 장수를 저드랑 밑에 꺼서 죽이고, 한 장수를 소리질러 죽이니, 이 뒤부터 사람들은 손 책을 불러 소패왕(小霸王)이라 한다.

이 날, 유 요는 크게 패하고 남은 군사를 수습하여 멀리 북음을 도망하여 버렸다.

손 책은 군사를 이끌고 말릉(秣陵)으로 들어 가서 백성들을 안무(安撫)하고, 다음에 경현(涇縣)으로 가서 범 같은 장수 태사 자(太史慈)를 항복 받았다.

이제는 수하에 퍼있는 실향도 여럿이요, 날뼌 장수도 적지 않

으며, 군사도 수만 명이 된다.

이에, 손 책이 그들을 거느리고 강동(江東)으로 내려 가서 백성들을 안무하니, 항복하는 자가 무수하다. 그는 특히 수하 군사들을 엄중히 단속하여, 털끝만큼도 노락질을 못하게 하였다. 이러므로 하여 손 책과 그의 군사가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은 진정으로 그들을 반겨 맞았고, 마침내 손 책은 강동에 웅거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이 젊은 영웅에게 수(壽)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원혐(怨嫌)을 품고 있는 무리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손 책이 잔에 올라 사냥하는 때를 타서, 활을 쏘아 그의 뺨을 맞친 것이다.

화살에는 독한 약이 발라져 있었다. 의원은 정성껏 치료는 해주면서도

“독(毒)이 이미 뼈 속으로 들

어 갔으니, 앞으로 적어도 백일(百日)은 안경(安靜)을 하셔야만 할까 봅니다.”

그러한 말을 하고 돌아갔다.

손 책은 남 팔리 성미가 급한 사람이다. 그날로 곧 낫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만 더러더러 내었다.

증세(症勢)는 나날이 갈려만 갔다.

원 소에게서 진 진이 글을 가지고 찾아 온 것은 바로 이러한 때다.

손 책이 그를 불러 들어, 온 뜻을 물어 보니, 그것은 곧 두 집이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조조를 치자는 것이다.

그는 크게 기뻐하여 즉시 장수들을 모아 놓고, 연일 조조 천일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큰 뜻을 펴 보지는 못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에 또 뼈 속에 든 독은 자꾸 번져, 그의 온 몸에 퍼지고 만 것이



다.
손 책은 자기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깨닫고, 곧 인수(印綬)를 가져 오라 하여, 아우 손 권(孫權)에게 버리고,

“이 부터 힘써 강등을 보전라 드록라이라.”

간곡히 부탁하고, 또 그가 가 경 입고 사랑하는 신하들에게도, “원하가 크게 어지러운 이 때를 말하여, 그때들은 부디 내 아우를 잘 모아서 대업(大業)을 이루도록 하오.”

제삼 당부하고, 다시 그 어머니 오국태(吳國太)를 돌아 보고, “저의 목숨이 다하여 다시 어머니를 못모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사오나, 권의 제수가 저의 짐배나 나오니, 즉히 대업(大任)을 감당(堪當)하오리다. 그러나 만약 앞으로 내사(內事)에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장 소(張昭)에게 물도록 하시며, 외사(外事)에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주 유(周瑜)에게 물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그 아내 조부인(喬夫人)에게도 직별을 지운 다음, 마침내 제상을 버리니, 이때 손 책의 나이 겨우 스물 여섯이었다……

손 책이 세상을 떠나자, 손 권이 그대보 그의 평생 아메 쓰러져 우니, 장 소는 말한다.

“사람이 장군의 우설 뼈가 아 낫는다. 즉시 한편으로 치상(治喪)하시고, 또 한편으로 군국 대사(軍國大事)를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손 권은 비로소 눈물을 경우고 그날부터 장종의 책로운 주인으

우리 학교가★

서울 방산 국민 학교

서울도 한복판에 떠진 못등산
언제나 즐겁으로 모여 드는 곳
피로우나 즐거우나 힘을 합하여
아아 빛나는 우리 방산 새나라의 힘.

남산의 소나무는 우리의 기상
북악의 굴뚝 모습 우리의 마음
공부에 운동에 힘을 다하여
아아 빛나는 우리 방산 새나라의 힘.
(장 주원 • 지음)

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었다.

그도 또한 인걸(人傑)이었다. 무예와 용맹으로는 도저히 그의 형을 따를 수 없었으나, 어쩔고 능한 사람들을 가리어 써서, 백성을 다스리는 재주는 손 책보다 몇 곱절 나았다.

본래 강등은 양자강(揚子江)은 물을 옆에 끼고 있어, 땅도 기름 지러니와 인물들도 많이 모였다.

정 보(程普) • 황 개(黃蓋) • 한 당(韓當)의 무리는 손 권의 대(代)부터 따라다니던 장수들이요, 장 흥(蔣欽) • 주 태(周泰)와 진 무(陳武) • 능 투(凌統)이며, 대사 지(太史慈)와 같은 무리는 형 손 책을 모아서 여러 번 싸움에 큰 공을 이룬 사람들이다.

특히 손 책이 죽을 때 내사(內事)를 부탁한 장 소와, 외사(外事)를 당부한 주 유는, 모두 직견(直見)이 넓고 재주가 비상한 사람들이다.

주 유는 서성(舒城) 사람으로 자는 공근(公瑾)이니, 손 책과는 바로 이럴때 동무로, 나이도 한 동갑이다.

손 책이 세상을 떠나고 손 권이 강 등의 새 주인이 되자, 주 유는,

“어쩔고 능한 이가 많아야 나라가 흥(興)하는 법입니다.”

하고, 동천(東川) 사람 노 숙(魯肅)을 원거(薦舉)하였다. 노 숙의 자는 자경(子敬)이니, 지모(智謀)가 남에게 뛰어난 사람으로, 결하여 덕(德)이 있는 이다.

손 권은 그를 심히 존경하여, 여양 일이 있으면 그를 청하여 의논하였다.

노 숙이 손 권에게 다시 한 사람을 원거하여, 그는 남양(南陽) 사람 제갈 군(諸葛瑾)으로, 역시 학식이 넉넉하고 재주가 많은 것이다.

제갈 군은 손 권에게 원거하여,



바닷물은 왜 푸른가?

【문】 이번에는 한 가지말 여
꾸어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파
랴게 보이는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서울 성북동 이
관수)

【답】 바다라면 누구나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푸른 빛
이다. 그러나 정작 바닷물을 바
닷가에서 손으로 떠서 보면 결
코 푸르지 않다. 담수(淡水)와
같이 무색투명(無色透明)이다.
그러나 눈을 한번 저 멀리 바다

로 보내면, 바닷물은 여전히 아
름다운 푸른 빛을 하고 있다.
대체 바닷물은 왜 푸른가?

이것은 하늘빛과 마찬가지로
심도(深度)와 증대한 환계가 있
다는 것은, 얕은 바다일수록 빛
이 엷고, 깊은 바닷수록 푸른
빛이 진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여
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
닷물은 평균 15미터에 녹색(綠
色), 16미터에 녹색(綠藍色),
23미터에 퇴남색(褪藍色), 26

미터에 남색(藍色)을 이룬다고
한다. 심도와 같이 또하나 증
대한 환계가 있는 것은 태양의
광선(光線)이다. 맑은 바닷물
은, 담록 태양의 광선을 받아
들여, 그 빛을 더욱 아름답게 한
다. 또 염분(鹽分)도 다소(多
少) 관계가 있다. 즉 염분이 많
으면 많을수록 남색이 더 진어
지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 남,
조린 날, 바람과 비의 유무(有
無) 등, 또는 육지(陸地)와 가
까운 바다에선 강이나 개천이
있고 없는 것으로도 바다 물빛
에 영향이 미친다.

원 소와 왕래하지 말고, 아직은
조 조에게 순종(順從)하고 지내
다가, 차차 기회를 보아서 종을 도
리를 차리라고 한다.

손 권은 그 말을 좇았다.]

이리하여 손 권은 그 수하에 인
물들을 많이 견우어, 그 이름이 강
동에 크게 떨치고, 또한 민심(民
心)을 깊이 얻게 된 것이다.

—계 속—

소녀 삼국지 어려운 말 풀이

- ▲잡담제하고.....말이 없는 수
작은 때 버리고.
- ▲변고.....이상한 사고(事故).
- ▲장원(莊院).....별장.
- ▲초당(草堂).....안채에서 따
르 떨어져 있는 초가.
- ▲산寨(山寨).....산 속에 세운
영寨. 산적(山賊)의 소굴(巢窟).
- ▲백복(拜伏).....엎드려 절하
는 .
- ▲적굴.....모국의 소굴.]

▲추앙(推仰).....높이 우러러
사모하는 것.

▲약관(弱冠).....스무살 된 남
자.

▲필박(逼迫).....괴롭게 구는
것.

▲벽력(霹靂).....벼락.

▲소패왕(小霸王)..... 진(秦)
나라 말년에 강동에서 일어나, 환
고조 유 방(漢 高祖 劉 邦)과 천
하를 다투던 항 우(項 羽)를, 손
패왕(楚霸王)이라 한다. 손 책을
그 항 우에게 견주어 “소패왕”이
라 한 것이다.

▲안무(按撫).....백성들의 형
편을 잘 살피서 어루 만지고 사
랑하는 것.

▲노략질.....남의 재물을 빼앗
는 것.

▲수(壽).....오래 사는 것.
목숨.

▲인수(印綬).....인פק지, 관
인(官印)의 끈.

▲대업(大業).....큰 사업.]

▲대임(大任).....중대한 임
무(任務).

▲감당(堪當).....일을 능히
담당하는 것.

▲내사(內事).....국내문제(國
內問題).

▲외사(外事).....국제문제(國
際問題).

▲치상(治喪).....초상을 처
리는 것.

▲군국대사(軍國大事).....전
시국가(戰時國家)에 일어나는
중대한 사건.

▲인걸(人傑).....결출(傑出)
한 인물.

▲식견(識見).....학식(學識)
과 견문(見聞).

▲천거(薦舉).....인재(人材)
를 추천(推薦)하는 것.

▲지모(智謀).....지혜로운 꾀.
▲순종(順從).....순순히 복종

하는 것.

▲민심(民心).....백성들의 미
음.]

가난한 사람의 지혜

김 현 미

어느 날, 한 가난한 사람이 말
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점심 때
가져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나
른 말의 말을 붙들어 맨 뒤, 허리
를 굽혀 보따리를 끌러 주먹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마
침이 되자, 한 돈있는 사람이 와

그는 같은 나무에 말을 맨 후,
기름지고 맛난 점심을 먹기 시
작하였습니다.

얼마 안있어 두 사람은 요란한
소리를 듣고, 그쪽을 바라다 보
았습니다. 아아! 큰일 났습니
다. 두 말은 괴 루성이가 되어



말을 매기 시작하
였습니다. 이것을
본 가난한 사람은
말을 몰라며, “여
기 조심시오. 그 나무
가 내 말을 매선 안
됩니다. 내 말은
나무 사납기 짝이
입니다. 아마 당
전 말을 죽일는지
모르지요. 제
말 다른 나무에다
매십시오.”

이렇게 웅크렸습
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들은척 만척 아주 거
만스럽게,

“자기 일이나 잘 전사하지 무
슨 말대 없는 참견이야, 걱정말
고 자기 할 일이나 하게그려. 나
는 내 마음대로 매고 싶은 곳
에 말을 매겠네,”

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것을 본 두 사람은 먹던 점심도
땀에 차고, 벌떡 일어나서 싸움
을 말리러 달려갔습니다. 그리
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돈있
는 사람의 말은, 가난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 그만 죽고 말았습

니다.
“잘 보아라! 내 말이 무슨 것
을 하였는지.”

돈있는 사람은 불명이 같이
성이 나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
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
시

“너는 내 말값을 내줘야 한
다. 너는 빨리 내 말값을 내어
야 해,”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
을 재판관 앞으로 끌고 갔습니
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오! 현명한 재판관이시
여, 이 사람의 사나운 말이 내
말을 죽였습니다.
내 착하고도 온순
한 말을 죽였습니
다. 이 사람에게
말값을 묻지 하
지든지, 그렇지 않
으면 이 사람을 감
옥에 가두어 주실
시오. 제발 이 소
원을 들어 주실시
오.”

재판장은 조용
히 가난한 사람쪽
을 바라보며 물었
습니다.

“정말 내 말이 저
사람 말을 죽였느냐?”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한마디
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 너는 말
어리냐?”

또다시 재판장은 물었으나,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잠자코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재판장은 자꾸 자꾸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입을 꼭 다물고, 하늘이 두너쳐도 말을 안 할 모양으로, 까딱도 않고 그림 같이 서 있기만 합니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돈있는 사람을 향하여 재판장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사람은 병어리다. 그는 말을 할 줄 모르는 병어리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돈있는 사람은 고개를 흔들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 모양 말을 아주 잘할 줄 압니다. 길 가에서 이 사람은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고 의기양양하여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그렇다면 무

엇이라고 너에게 말을 했느냐?”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고 말고요, 그 나무에다 말을 매진 안 됩니다. 내 말은 아주 사나워서 당신 말을 죽일 것이니까요. 제발 다른 나무에다 당신 말을 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걸요.”

돈있는 사람은 푹푹하게 어깨를 으쓱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잠자코 듣고 있던 재판장은, 무릎을 탁 치며

“오! 그런가. 이제야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만일 너에게 이 사람이 그렇게 잘 타일러 가르쳐 주었다면, 너에게 말값을 줄 필요가 없다. 그것을 비난(非難)할 사람은 너 뿐이다. 네가 이 사람의 충고(忠告)를

받은 얼굴에 조용한 웃음을 머무고 공손히 재판장에게 절을 한번 한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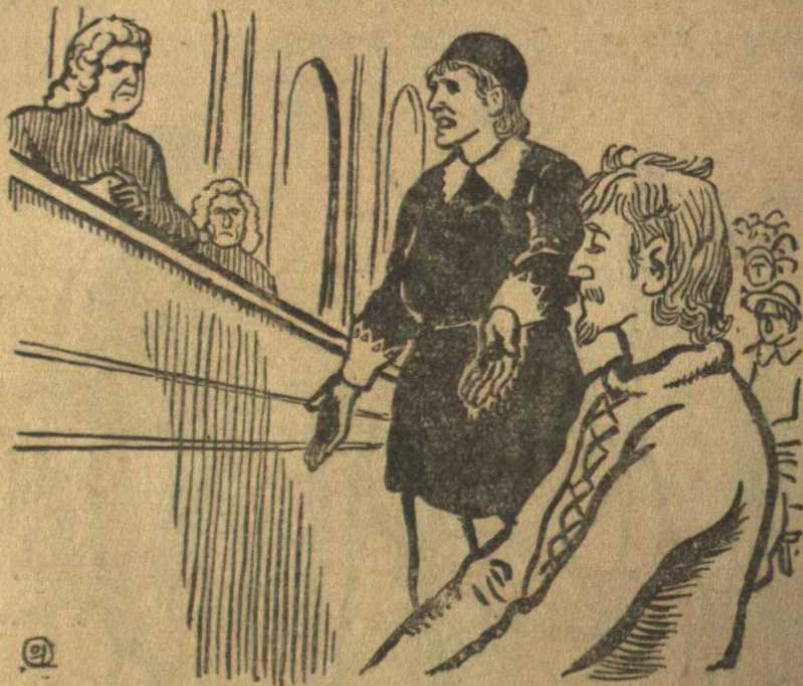
“오! 현명하신 재판장이시어! 처음에는 당신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같은 나무에 매지 말라고 타일렀다는 것을, 당신에게 여쭙었다면, 이 사람은 아니라고 우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쪽 말이 정말인지 정을 못지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명하신 재판장이시어.”

이렇게 대답하니, 재판장은 크게 기뻐하며, 돈있는 사람을 꾸짖어 돌려 보낸 다음, 이 가난한 사람의 현명한 지혜에 대하여 칭찬을 하였습니다.

—끝—

(그림·김 의함)



잘 들었다면, 일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재판장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

“왜 내 질문에 대답을 안 하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가난한 사

★작품 모집자

여러 분 소학생의 작품을 모집합니다. 작문, 동요, 그림, 습자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정철진)



이·아·기·끼·리

▲아주리가 서쪽 바닷가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계구리를 발견하였다는데, 놀랍게도 그 길이가 33 cm나 된다고 한다.

▲세계의 기이로 시에, 세계에 시 제일 오래 된 대학이 있는데,

요즈음 제 1,006 회의 신학년을 시작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서 수업료를 받는 대신, 매월 5분(弗) 내지 12분의 학비를 준다.

▲10억(億)이라는 수가 얼마나 많은 수인가에 대한 생각은, 어떤 수학자가 실제로는 예로서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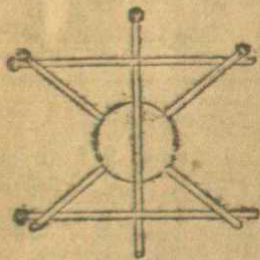
알 수 있다. 이 학자의 말에 의하면, 10억 분은 7분짜리 종이 한 줄, 길이 100미터인 줄을 한 줄이면, 지구를 거의 4번 돌 수 있으며, 또 10억 분(分)의 지름은, 지금으로부터 서기 5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닥다리를 내려오는 인형

★ 동전(銅錢) 매달기 ★

여러 분! 동무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다음의 것을 보여 주며 해보라고 하십시오. 아마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즉 성냥개비 다섯 개와 동전을 하나 꺼내 들고, “자! 여러분, 이 다섯 개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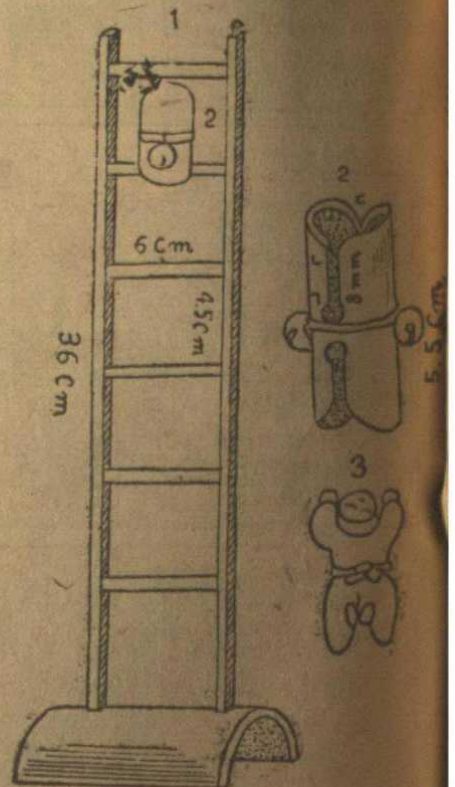
냥으로 이 동전을 쳐들어 보아라” 하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서로들 머리를 가우뚱거리며, 해 보려고 애를 쓸 것이나,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림과 같이 성냥개비를 서로 맞추면 됩니다.

이 사닥다리를 내려오는 인형을 만드는 법은, 사닥다리와 인형을 둘로 쪼개서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다. 먼저 인형 ②부터 말하겠다. 직경 2,5cm, 길이가 5,5cm이며, 가운데 마디가 있는 대(竹)를 가지고, 7에다 직경 8mm가량의 구멍을 뚫고, 그 위에는 넓이 2mm, 길이 1,2cm의 도랑(溝)의 구멍을 만들고, 윗쪽은 ㄷ과 같은 모양으로 깎는다. 마디에서 아래쪽도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대통 뒤쪽에서 ③과 같은 익살맞은 인형을 그린다. 만약 인형을 그리기가 곤란하면, 먼저 종이에다 이 인형을 그리고, 그것을 가위로 잘 오려서 붙이면 좋다. 맨나중에는 머를 접어맨 곳에다 두 개의 방울을 달아 둔다.

다음 ①의 사닥다리를 만들려면, 먼저 36cm 가량의 대를 가지고, 이것을 둘로 쪼개 다음, 그 가운데다 여러 개의 가느다란 대를 끼운다. (가느다란 대는 넓이가 5mm, 두께 2mm, 길이 6cm로 하고, 가느다란 대와 대사이에는 4,5cm씩 한다. 양쪽을 다 작은 못으로 박고, 이것을 둘로 쪼개 대 위에다 똑바로 일으켜 세운다.)

지금 ②의 인형을 사닥다리의 맨 위에다 놓고 손을 떼면, 인형은 베굴베굴 거꾸로 구르며 팔랑 팔랑 방울소리를 귀엽게 내면서 내려온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인형을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놓았을 때의 인형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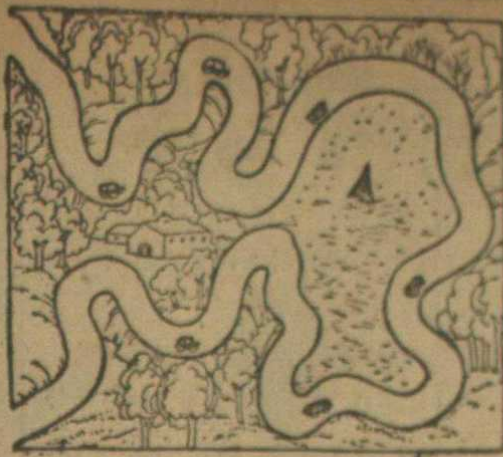
(重心... 물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 은, 사닥다리의 중계보다 위에 있고, 또한 이 중계의 두께가 아주 좁은 까닭에, 인형은 탄균에 안정(安定)한 수가 없이 그 다음 아래 중계로 거꾸로 굴러 내려온다. 그러나 이곳에서



도 몸의 중심을 안정시킬 수 없어 또다시 떨어진다. 이와 같이 차례 차례로 사닥다리의 중계가 있는데까지는 굴러 떨어지는 아주 재밌고 신기하고 익살맞은 장난감이다. 이런 동생들은 물론 중학교에 입학한 형님들만 만들어 드리기만 하면, 그 재미에 공부에 피로한 마음이 한바탕 웃음으로 상쾌하게 될 것이다.

교부랑길

여기 있는 그림 저쪽에 거울을 세우면, 그 그림이 거울에 비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치거던 연필 끝을 자동차로 삼고, 그 그림 속에 있는 교부랑 길을 따르는 것인데, 물론 거울만 드려다 봐야지 그림을 파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그림처럼 그림을 피지 않게 다가가 위해서, 두꺼운 종이로 막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길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가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내기를 할 때는, 시계를 꺼내놓고 몇 초 걸렸는지 따져보면 되는데, 짐자동차 (길에 있는 짐

자동차 이것 때)에 부딪히면 3점, 나무에 부딪히면 2점, 그 밖에 이따저든지 길 밖으로 벗어나를 때마다 한 점씩 감습니다.



(문) 박사 할아버지 그간 병이 나셨던가요. 어제 8월 한달 쉬셨습니까? 한문제 물렸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짊으면 짊을 우뚝 키지는 것이 무엇? (서울 덕수 국민교 3년 박정서)

(답) 아카서 쉰 것이 아니라, 저배들이 더 재밌게 읽게 주어야라고 그랬지, 개서부터 읽기는... 구멍일세 구멍. (최척박사)

(문) 안녕하십니까? 이만엔 어려워서 글자를 알으실 것입니까. 아무튼 손집이나 물고 가지요. 고체(固體)를 뜨게면 액체(液體)가 되고, 그 액체에다 열을 주면 또 고체가 됩니다. 하하 뭐일까요? 너무 썰썰해서면 최척 보기 참

피하지않습니까? (경기도 수석 국민교 6년 권오영)

(답) 어보게 왜 이렇게 미리



짐적으로 서두르나. 내 이름이 척척박사줄 모르나? 그것은 말갈, 하하... (척척박사)

(문) 과선 용하시긴 하신 것 같지만, 이것만은 못하실걸요. 밤에 머



릿에는 금관(金冠)을 쓰고 하얀 옷을 입고,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점점 말라빠지는 괴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도깨비나 귀신은 아닙니다. (서울 천성 국민교 6년 황은식)

(답) 내가 일할때 박사라면 도깨비도 골라기가 쉽지만, 세상에 소문난 나니할... 요사이 전기가 앓들어와 밤에 초를 많이 쓰는 모양일세 그려. (척척박사)

(문) 꼬다리를 건너서 때마

리를 건너고, 또다시 꼬다리를 건너면 불이 박박만까 보입니다. 무엇일까요? 송화시라는 소문애, 물기가 답하여 인사도 겁이 치웠습니다. (경기도 수석교 3년 권오순)

(답) 그것할 재밌군, 담뱃대란 것이지?

(척척박사)

(문) 최척 대답도 잘 하

시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척 박사 할아버지 잘 찾아온 나만은 어렵일요. 쉰리 잘못 대답했던 큰 야만남니다. 저야 준비! 나무 위에서 열지를 먹고 하얀 이를 내놓고 방그레 웃고 있는 것은 무엇? (강원도 장릉 권오민)

(답) 어피! 피웃 없는 권구로군! 큰소리만 당할 리야란 재미 없어. 아니 석류는 왜 찾나, 초를 초심 묻거나. (척척박사)



소학생 구락부

만들고 나서

▲여러 기자 선생님 더운 여름 한철 아무 연고 없이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동요를 하나 보였으니 잘 지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철에서 발행한 책을 몇 가지 알려 주십시오. 또 "소학생" 56호 23 페이지에 있는 부여 구경에, 한글문 복수정으로, 한문으로 수복정으로 되었으니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망원경과 금속 활자는 누가 발명했는지 수고스럽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8월치를 위해서 참으로 섭섭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 종로 5가 125의 2 고기덕)

△ 9월치를 좀더 잘 꾸며드리느라고 부득이 8월치를 쉬었으니 널리 양해하십시오. 그리고 56호 부여 구경은 수복정이 맞습니다. 아철에서 요즈음 나온 책으로 "왕자와 부하들" "이순신장군" "곤충 이야기" "어린이 피아노 책" 조금 전에 나온 것으로 "세계의 악성" "귀머리는 집오리" 그 밖에 그림 액자 책 등입니다. 망원경에 대해서 "소학생" 7월치를 읽으시면 아실 것이며 금속활자는 서기 1,455년 독일의 케에덴부르그란 사람이 발명하였습니다. (기자)

▲소학생을 길러 주시는 기자 선생님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동요와 팔각박사를 번번히 못하길 알면서 보내니 잘 보아 주십시오. 아참! "이순신 장군"은 언제 나와요? 꼭

가르쳐 주십시오. (서울 수송교 3의 3 이종구)

△작품은 고맙게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벌써 나와 책사에서 지금 팔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아철의 여러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갓이고"와 "가지고"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주간 소학생" 32호, 44호, 23호, 19호가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부디 몸 조심하시고 다시 뵈올 때까지 안녕히. (서울 교동교 5의 3 이원세)

△ "가지고"가 맞습니다. "주간 소학생"은 19호, 44호 만은 있습니다. 종로 문장각에 가 보십시오. (기자)

▲여러 기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 정하겠습니다. 작품을 잘 내는 방산교의 고기덕군을 소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연락하여 친절한 동무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잘 지도하여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사진을 "소학생"에 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남 서산 부성 국민교 6년 이은호)

△좋은 말씀입니다. 이 글을 고기덕군이 읽는다면, 다음달치 "소학생" 구락부를 통하여 무슨 기별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 사진은 기회가 있으면 실려 드리겠습니다. (기자)

부색적인 등우들을 다시 따라가게 되니 반갑고 믿음직하다. 선진한 기술 바람과 함께 새 학년에 오르신 여러 분들 새 마음 새 뜻으로 부지런히 공부하시라. 지난 여름에는 하루도 반한 날이 없었다고 할만큼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30년만에 처음이라는 광혹한 수해를 입었다. 여러 분 등우들 가운데에도 이번 수해로 미암아 논밭을 잃고 집을 잃고 부모를 잃어서 학교에도 나오지 못하는 등우들이 많이 있을 줄 생각된다.

얼마나 가엾고 슬픈 일인가! 친하게 같이 놀던 동무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모른척하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따뜻한 동정을 보내시라. 그리고 앞으로는 과학을 발달시켜서 여러 연을 정복하고 행복스럽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애 힘쓰시기 바란다. (김은정)

1948年 9月 1日 發行
 소학생 • 값 90 원
 9월치 ★ 제 60호
 總發行人 尹石重
 發行人 主幹
 發行所 兒 協
 1947年 9月 30日 註冊 第249號
 서울 鐘路 2街 永信堂
 電話【光】3370番・3492番
 總發賣 乙酉 文化社
 賣店 * 文章閣 * 鍾路 2街

서울신문社 印刷局
 1947年 9月 31日 印刷 第148號

★ 許可 證 號 第169號 ★ 許可 日期 1946年 7月 5日 ★ 第3種 印刷物 許可 日字 1946年 4月 22日 ★



學生朝鮮語辭典 李永哲 編纂 李熙井 監修

국어 공부에 열심인 여러 학생들은 이 <학생 조선어 사전>을 한 권씩은 꼭 가지셨을 줄 압니다. 만일 아직 모 안가지신 분은 지금 곧 주문하시어 언제나 경제충고 보시도록 하십시오.

책 값 250 원

서울 鍾路 水保 乙酉文化社 發行 京 城 乙酉 社

과학 박물관장 조복성 선생 지은 곤충 이야기

우리 인류와 가장 인연이 깊은 곤충들이 이 책에 모조리 나옵니다. 그 생김새와 생활과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점, 해로운 점, 또 잡는 법,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재미 있게 적혀 있습니다. 잇따라 공부에 훌륭한 참고서.

책 값 150 원

서울 광로 아 협 발행

그림백과사전 ③ 여러 나라의 게임

